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MAY 27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3~1144 1983년 5월27일(금) & 2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May 27 & 28,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금년부터 소년부(14세이하) 신설

제2회 어린이 야구대회

본사주최, 7월2·3일 센테니얼 파크

제2회 토론토한국일보 사배 어린이 야구대회가 오는 7월2일(토)과 3일 양일간 에토비콕소재 센테니얼·파크(Centennial Park)에서 열린다.

어린이 스포츠의 진흥과 건전한 체력향상 목적으로 작년도에 이 대회를 창설한 본사는, 각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가운데 2회대회를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금년부터는 소년부를 신설, 열기를 더 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여러교회와 단체는 출전준비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연습에 한창이다.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어린이부가 만12세까지(1971년 1월1일이후 출생)이며, 신설된 소년부는 만14세까지(1969년 1월1일이후 출생)이며, 각 팀은 대회당일 선수들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대회의 경기규칙과 방식은 온타리오아마추어 소프트볼 협회(OASA)의 규정을 적용하고 양부분 모두 소프트볼(1인치짜리)을 사용하며, 투구(Pitching)는 언더스로우(Underthrow)를 채택한다.

대회운영상 필요한 제반규칙은 감독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최종 감독자회의는 오는 6월24일(금) 오후7시 본사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의 시상으로는 1, 2, 3등팀에 대한 트로피와, 개인상부분에 최우수선수상, 투수상, 타격상, 감투상, 장려상 등이 부상과 함께 수여되며, 이외에도 응원상이 첨가된다.

대회 출전참가비는 팀당 50달러.

작년도 1회 대회에는 총6개팀이 출전, A·B조로 나누어 열전을 벌린 가운데 우승에 연합교회팀, 준우승은 통일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심판및 진행위원장인 박재선씨는, 이번 어린이야구대회가 스포츠를 통한 교육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팀워크를 바탕으로한 협동정신과, 경기규칙 준수를 통해서 스포츠인의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본사가 제정한 제2회 민족상 체육부문을 수상한 야구인으로 한인최초의 소프트볼 코칭면허를 취득했다.

대회출전에 대한 제반문의는 한국일보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진행위원장 박재선(755-6434)등이다.

인종분규진상특별위원회 구성키로

백인·소수민족간의 마찰줄이기 위해

◆기자회견하는 짐·플레밍 장관

연방복합문화성은 백인과 소수민족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짐·플레밍복합문화성 장관이 25일 밝혔다.

플레밍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본 토론토·한국일보사등 에트닉 신문들을 포함, 각 언론 초청 기자회견에서 일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종문제가 점점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이같이 특별위를 구성, 진상을 캘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의 대표 7명으로 이루어질 인종문제특별위는 앞으로 6개월간 캐나다전역을 순회하며 인종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플레밍장관은 이날 "캐나다국민들은 대개 인종간 분규가 원인이 된 폭력사건을 인종문제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간주, 인종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서 "인종분규를 안이하게 판단, 방관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81년 토론토의 지하철역에서 3명의 백인청년이 베트남 난민을 넘어뜨린 사건, 79년 메트로·토론토경찰이 자메이카계의 알버트·존슨씨를 사살한 것등을 인종문제로 인한 사건의 예로 지적했다.

플레밍장관은 또 영국이 자기나라에서는 인종분규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온 결과, 최근 수년간 걷잡을 수 없는 인종폭동을 겪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알버타주의 학교에서 반유태인주의 교육을 실시해왔음이 밝혀진 것, 몬트리얼의 고등학교에서 타인종청소년간의 데이트에 관해 논란이 일은 것, 브리티쉬·콜럼비아주에서 백인과 소수민족간의 투석전이 전개된 것등을 그 예로 지적했다.

인종문제특별위를 통해 소수민족들이 캐나다사회의 주류에 영입되는데 느끼는 좌절감에 관해 듣고자 한다는 플레밍장관은, 특히 경제가 계속 침체되자 소수민족들이 백인들의 직장을 빼앗아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2년전 복합문화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의 응답자중 3분의1인 7백명 정도만이 캐나다를 백색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안에 지지를 표명했었다.

光州사태 주동 指名手配받아온

윤한봉씨 美에 亡命신청

2년전 貨物船타고 호주거쳐 密入國

LA프레스클럽서 記者會見

광주사태주동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전 전남대학생(4년제적)윤한봉(35)씨가 2년전 미국에 밀입국, 이미 미이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날 상오10시 LA프레스클럽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선의로 밀항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미칠까봐 숨겨왔으나 82년 12월 소위 「오송회」사건으로 관련자가 모두 체포돼 오늘 모든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윤씨는 80년 5월 계엄사령부에 의해, 82년4월 치안본부로부터 광주사태 주동자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는데 『한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국내에서는 더이상 활동할수없다고 판단, 삼미사소속 「레퍼드」호(3만톤급화물선)을 타고 호주를 거쳐 워싱턴주 시애틀에 지난81년 6월3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미국도착후 윤씨는 「북미주한국인권옹호협의회」의 도움으로 숙식을 제공받아왔으며 『연방상원 에드워드·케네디의원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고, 워싱턴주 미이민국에 이미 정치망명을 신청 현재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LA프레스클럽에서 자신의 밀입국경위와 망명신청 사실을 밝히는 윤한봉씨(35).

실협$5,000 희사

토론토한인회에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는 지난3월26일에 거행된 실협창립 10주년 파티의 수익금 1만달러중 5천달러를 26일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에 희사했다. 나머지 5천달러는 실협의 컴퓨터설치 보조금으로 쓰인다.

이날 낮 아리랑하우스에서 차회장은 장회장에게 5천달러 수표를 전달하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인회를 돕는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인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게"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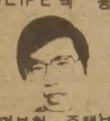
또한 장회장은 "조흥래영사의 포니승용차기증등 금년들어 한인회에 많은 액수의 회사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성의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실협측에서 차회장, 서준경이사장, 조기연부회장이, 한인회측에서 장회장, 김태진이사장, 이기훈·변의섭부회장등이 참석했다.

◆회사금 전달식……

좌로 부터 이기훈한인회 부회장, 김태진 한인회이사장, 이회 실협총무이사, 장순채 한인회장, 이춘수 부이사장, 차선겸 실협회장, 조기연 실협부회장, 서준경 실협이사장, 변의섭 한인회 부회장.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 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심장·폐 동시이식수술 성공

캐나다최초의 의학적 개가

(런던, 온타리오)캐나다내에서는 최초인 심장과 폐(Heart and Lungs)동시 이식수술이 25일 이곳 대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병원대변인 켄·스튜어트씨는 이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환자의 용태는 양호하나 계속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더·베이(Thunder Bay)에 거주하는 37세의 존·아담스씨에게 실시된 이식수술은 동대학병원 장기이식수술팀의 책임자인 네일·메켄지박사에 의해 7시간에 걸쳐 집도됐다.

2형제의 아버지인 아담스씨는 태어날때 부터 심장에 작은 홀(Hole)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폐로 들어가는 신선한 피의 공급에 장애를 받아왔고, 최근엔 폐가 상하고 심장장해까지 일으켜 사경을 헤매었다.

◆존·아담스

남북한대표 한자리에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

(도쿄=아사히신문)지난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쿄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회의」에는 남북한 대표가 동석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국측에서는 박근씨, 북한측에서는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이준옥부소장이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 남북대표간의 대화나 접촉은 없었다.

아직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대표단 아베 일본외상 주최의 환영리셉션에 초청하는등 「이례적 대우」로 영접한 일은 앞으로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방일중 북한측 대표단장 이준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교차승인이나 UN동시가입 구상은 "둘 다 남북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영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차승인 반대를 되풀이했다.

「교차승인」이란 미·일의 북한 승인과 동시, 중·소의 남한 승인을 뜻한다.

중공, 북한세습제 인정

김정일논문소개등 아첨

(북경)지난21일자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국제란에는 북괴 김정일(김일성 장남·노동당정치국 상무위원겸 서기)의 논문이 자세히 실렸다. 이는 중공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김정일을 김일성의 주석후계자로 중공지도부가 공식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지에 실린 김정일의 논문은 북한노동당잡지 「근로자」 83년 제5호에 발표된 「막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자」는 글을 전재한 것이다.

이 논문은 막스사망 100돌을 맞아 쓴 것으로 막스주의가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길을 텄다는 점과, 막스·레닌주의를 북한에 적용한 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택동 사망후 4인방사건을 경험하고, 「지도자의 세습」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중공이 이번에 아첨하듯이 김정일을 돋보이게 한 처사는 중공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중 직접대화에 대한 북괴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김정일을 초성할 움직임의 일환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일

비지니스 수선랍

오락센터 오픈

교민 박용씨가 지난달 칼리지·스트릿 조지·브라운학교옆에 오리엔탈·레크리에이션 센타를 개업, 성업중이다.

한국식 당구대와 서양식 당구대, 비데오·머신등을 구비한 오리엔탈·레크리에이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새벽1시까지 연중무휴 영업하며, 예약을 환영한다.

앞으로 교민의 당구대회를 열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박씨는 현재 도넛·숍, 비데오·게임·머쉰 공급사업도 겸하고 있다.

전화문의는 624-5597.

광고정정

지난 26일자 제3면 〈오리엔탈·레크리에이션·센타〉광고중, 신장개업 6월6일(월)은 사실이 아니오며, 현재 이미 OPEN해서 성업중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일 海底터널 추진

統一教 관련단체서 調査착수
한국남단—규슈도 남단 연결
향후 20년간 1백 27억弗계획

〈동경-AP〉통일교 관련단체인 한·일터널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세계최장해저터널의 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고 사사·야스오연구원장이 발표했다.

이발표에 따르면 한·일터널연구원은 향후20년간 총1백27억달러를 들여 한일해저터널을 완성키로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혹가이도국립대학지질학 명예교수인 사사·야스오씨는 이해저터널이 대한해협을 거쳐 한국남단과 일본본토인 규슈도남단을 연결하며 거제도와 스시마섬및 이끼도등을 통과하는데 총길이가 1백15마일.

사사·야스오씨는 이 해저터널공사를 위해 한일양국정부의 후원을 요청하고 각연구단체들로부터 기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데모선동등 혐의 成大生 5명 체포

〈서울-UPI〉성균관대학교수원분교의 5명의 학생들이 반정부데모조직혐의로 24일 검찰에 체포됐다.

남학생3명과 2명의 여학생인 이들은 지난 18일 약2백장의 반정부전단을 배포하고 데모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형사법원은 23일 성균관대학교 학생 10명의 집회시위위반혐의에 대하여 징역18개월부터 3년까지를 선고했다.

이들 10명학생은 지난 3월22일 학원내에서의 반정부데모주동혐의를 받았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1>

누가 惡魔인가 ②

납짝코는 女人의 젖꼭지 잡아 비틀며…

여인은 허리를 뒤틀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밀쳐내면서 말했다.

『물건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본부에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무거운 침묵이 한참동안 계속되었다.

그 침묵을 깨고 안경이 입을 열었다.

『그놈이 만일 국외로 빠져나가버리면 우리는 손을 쓸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전에 놈을 잡아야해. 놈은 아직 국내에 있으니까 빠져나가기전에 빨리찾아내서 작살을 내야해.』

『어떻게 놈을 찾아내죠?』

콧수염이 물었다.

『놈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를 쉽게 빠져나갈수가 없어. 반드시 연락이 올거야.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인해서 만나는 거야.』

『만일 전화가 안오면 어떡하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납작코의 사나이는 여인의 젖꼭치를 잡아 비틀었다. 여인이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놈이 언제쯤 전화를 걸어올까요?』

『전화 올때가 지났어. 좀더 기다려봐.』

납작코가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이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납짝코의 사나이는 다른 사람이 받으려는 것을 제지하고 얼른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었다.

그는 상대방을 불렀다. 그러자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제5의 사나이……』

朴男 그림

나 조용해서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납작코의 … 거칠어졌다. … 리장선……』 …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콜 … 말을 이었다. … 변만입니다. 눈이 빠지게 기 … 고 있었읍니다.』 … 건을 찾았읍니다. … 고 있읍니다. 정말 수고 많 … 니다. 배반자들까지 처치해주 … 정말 고맙습니다. 물건은 손 … 없었읍니까?』 … 게로 잘 보관되어 있어요.』 … 혼 지금 어디 있읍니까?』 … 가지고 있소.』 … 계신 곳은 어딥니까?』 … 수 없어요.』 …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겁니 …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와드릴 … 하는데 왜 피하시는 겁니 … 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 … ?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겠읍니다.』 … 쓰는 말은 집어치워요. 용 … 이야기해요.』 … 다면 좋습니다. 물건을 우 … 인계하십시오. 본부에서 연 … 오기를… 여기서 물건은 인 … 나고 했읍니다. 당신이 혼 …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것 … 위험한 짓 이기 때문 … 가 맡기로 했읍니다.』

86년에 통신위성 발사

한국어느지역에서도 미국과 자동통화가능

한국은 오는 86년까지 전화·우편·전신체제를 개혁, 통신위성도 발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미주교포들의 고국과의 교신이 한결 빠르고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TV중계·텔렉스분야도 획기적 轉機

미국전자업계를 돌아보기위해 LA를 방문중인 최순달체신부장관은 21일 『한국은 86년까지는 농어촌까지 미국처럼 전화가 가설되며,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는 미국에서만 자동으로 한국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하나 86년부터는 한국의 어느지역에서도 국제교환을 거치지않고 다이얼만 돌리면 미국과 자동으로 통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의 전문회사와 통신위성계획을 상담중이며 금년말까지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성계획이 완료되면 국제입찰을 거쳐 제작회사를 결정하게된다.

최장관은 한국이 통신위성을 통해 미국지역을 포함해 세계도처와 전화통화는 물론 TV중계, 텔렉스교신분야에 일대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전화보급률은 4백60만대선에 이르고있다고 밝힌 최장관은 86년대에 가서는 도시와 농촌에 「신청즉시가설」의 전화가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온」주정부는 냉담

내년도 일요영업 시험실시

온타리오주 정부는 내년도에 시험적으로 쇼핑·몰등 대행 소매상의 일요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메트로·토론토의 제안을 허가하지 않을것 같다.

25일 온타리오주 법무장[illegible] 조지·테일러[illegible]만 일요일에 영업을 허가토록 하는 "현재의 법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일러장관은 메트로·토론토 전체를 관광지역으로 구획해서 시전체의 일요영업을 허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폴·갓프리 메트로 시의회 의장은 테일러장관을 만나 일요영업허가가 고용창출등의 이점이 있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고교필수과목 강화키로

「온」주전역 내년가을학기부터

온타리오주 문교부가 84년 가을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영어·수학등 필수교육강화(Back to—Basics) 교육법은 학생들을 컴푸터의 노예를 만들고, 캐나다를 문화의 쓰레기장으로 만들것이라고 일부 학부모·학생·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다.

백·투·베이식스 교육방침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보다 엄격히 강화하고 언어와 기술과목의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온타리오 정부가 건의했으며, 올가을 세부내용 발표를 거쳐 내년 가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5일밤 칼리지·스트릿의 교육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와 학생"이란 단체는 백·투·베이식스 교육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들끓게 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새 교육방침은 "베토벤을 말살"시키는 반면, 앤·머리(캐나다출신 팝송가수)나 하키선수만 길러낼 뿐 예술이나 음악과목을 선택할 여지를 거의 없애게 된다는 것이다.

로이·톰슨·홀 구경할 절호의 기회

「모짜르트의 밤」입장권 파격적 3달러

입장권 3달러로 토론토가 자랑하는 대 음악연주홀 로이·톰슨·홀에서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다.

오는 6월1,2,3일 각 저녁 6시55분에 시작되는 모짜르트곡 피아노 4중주 G단조 K478연주의 밤이 바로 그 기회.

연주자는 피아노에 토론토·심포니의 지휘자 앤드류·데이비스, 바이올린에 토론토·심포니의 악장 스티븐·스테릭, 비올라와 첼로에 역시 TS단원인 모리스·펠레티에와 대니엘·돔 등이다.

유명한 로열·알렉산더·디어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로이·톰슨·홀(60 Simcoe St.)은 세계 수준급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티켓문의는 593-7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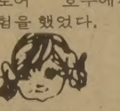
해양박물관에 보관키로

잠수함추적 쾌속전함

(오타와) 연방정부는 캐나다해군의 대잠수함추적쾌속전함인 수중익선(Hydrofoil) 브라스도오(Bras d'or)함(일명 : 흰코끼리)에 대한 취항을 중지하고, 퀘벡시티 40Km 하구의 아일레스메(L'Isle t-su-mer)촌락의 해양박물관에 보관, 전시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캐나다에서 디자인한 자랑거리인 5,300만 달러짜리 전함이 전시됨으로 이 촌락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게 됐다.

전장 150피트, 무게220톤, 22,000마력으로 최대속력 62놋트(시속114Km)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 함정의 원형은 1919년 알렉산더·그래함벨씨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당시 브라스도어 호수에서 진수실험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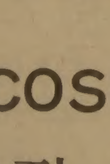
HAPPY TIME

◆예비역으로 물러가는 쾌속정 브라스도어함, 일명 흰코끼리로 불리우는 이배는 최대시속 114Km까지 항해했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Joiner of Amigos for Joy of Arts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순간들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으시렵니까…?

저희 JOA Studio는 Wedding Photo, Video Specialists로 여러분의 Wedding이나 각종행사 등을 오래오래 생생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사진이나 Video Tape에 담아 드립니다:

Best Quality Best Service
Satisfaction Guaranteed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샘플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이나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조영훈 299-4223 · 정재호 499-3893 · 윤성선 424-2082

「PHOTOGRAPH」
- Top Quality Studio Camera
- Special Effect Included
- Studio Portrait
- Video Analysis
- Variable Options

「*VIDEO」
- Many years of experience
- Best Camera & VCR used
- Auto music dubbing
- Both Format(VHS, Beta)
- Edited Tape

40 GODSTONE RD. #1204
WILLOWDALE 499-3893

JOA Studio

캐나다 한인컴퓨터회(COSKA)

하기 컴퓨터 강좌

저희 한인컴퓨터회(COSKA)에서 교민 여러분들의 컴퓨터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 컴퓨터란 무엇인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어디에 활용 할 수 있느냐 —에 대하여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교실을 한국어로 갖고자 합니다.

대 상 : 일반교민(초보자)
주 제 : —컴퓨터 입문
—컴퓨터 언어
—사용 용도

회 비 : $45
장 소 : 온타리오 교육회관(O.I.S.E)
252 BLOOR ST. WEST
연 락 처 : 669-5232(박성수)
636-9105(이대용)

기 간 : 6월23일~7월21(5주)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반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토론토, 미불법이민의 전초지

토론토지역에 25개 밀입국알선망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알선업 성행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넘나들며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캐나다 국경선. 사진은 버팔로로 넘어가는 피스·브리지의 캐나다측 톨게이트.

가이아나(Guyana)에서 온 사무엘·아더·비숍씨는 이민온지 몇해만에 큰 저택과 고층아파트 여러동을 소유한 부자가 되어 위대한 아메리카의 꿈을 실현했다.

그러나 그는 82년도에 1년여를 텍사스형무소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번돈에 대한 출처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숍씨는 상습적으로 캐나다에서 많은 밀입국자를 미국으로 알선, 보통 1주에 1-2회 캐나다 나들이를 통해 평균 한달에 25,000달러를 불법으로 벌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그의 차 트렁크에 4명정도씩 숨겨 국경을 넘게 해주고, 이에대한 댓가로 일인당 3,000달러를 받았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는 날이가고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밀입국자로 골치를 앓고 있다.

비숍씨는 휴가를 가장, 캐나다에 불법으로 들어와 눌러앉자 소수민족을 상대로한 밀입국 알선업을 시작했다.

얼마후 그는 미국입국을 위한 정당한 자격을 얻기위해 미 이민국의 담당자를 돈으로 매수,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5년이 지난 그는 죄상이 드러나 체포되기 직전, 정식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밀입국 알선과 세금포탈죄목으로 5년징역과 12,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시민권자로 추방당하지 않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1년만에 석방되었다.

버팔로 이민당국은 현재 토론토주변에 약 25개의 망을 통해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약 500명의 밀입국자를 인도했음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연 150만명이상이 불법입국, 체류하고 있다.

버팔로의 미이민국 책임자인 벤·페로씨는 토론토가 불법입국의 전초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보소식통은 알려지지 않은 알선업자가 아지트로 약50단달러 상당의 주택을 통해 이들을 은신, 밀입국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조직망도 교묘해 원조직 삼각조직, 사각조직등으로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와 돈·힐(Thornhill)지역에는 10여 연락책이 있으며, 브램톤과 죠지타운에는 8명의 전속 운전사와 신속기동하는 행동부대가 있고, 샌·캐트린에는 이들을 보호하는 중간 "안전주택"이 있으며, 바타비아, 루이스톤, 버팔로 지역에는 그들의 접선자 인도를 위한 픽업(Pick Up)지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약 36명의 전문 알선책이 있다.

캐나다 이민국관계자는 대부분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알선업이 횡행하고 있고, 현재 30여 개국이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운송수단도 가지 각색으로 속이 빈 밀크탱크 트럭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특별공간이 설치부착되어 숨어 들어가기도 한다. 초창기에는 가짜서류를 만들어 유유히 여행객을 가장 입국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년까지 버팔로지역에서 769건의 불법체류와 300여명의 밀입국자를 색출했다.

최근엔 숨는 방법도 교묘해졌다. 서 인도제국에서 들어온 한 그룹은 추운겨울 국경에 잠입, 동상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다 발각되었고, 4개월된 어린아기는 덮개가 없는 트럭의 밑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6주전에는 70세된 트리다니안여인과 6명의 밀입국자들이 트럭의 뒷부분 화물칸 덮개속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으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당시 트럭운전사인 멕네일은 현재 버팔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밀입국자들의 일부는 캐나다나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초청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알선업자들이 만들어준 가짜임이 판명되었다.

한편 수법들도 대담해 토론토국제공항에 들어오면 대개 당일로 시내로 나가 버팔로행 버스를 타는 일도 빈번하다.

그들은 왕복차표와 2-3주 체재할 수 있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은 일을하게 되는 경우, 어디서나 혹사당하고 있으나, 항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자들은 이를 악용, 치부하고 있다.

뉴욕의 한 공장은 시간당 7달러짜리 임금을 불법이민자들에게 75센트씩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도에 약 200명이 미국에 입국하다 발각되어 캐나다로 되돌아왔는데, 캐나다도 이들에 대해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캐나다 법조문에는 타국의 법을 어긴자에 대한 적용조항이 없으며, 이를 대처할 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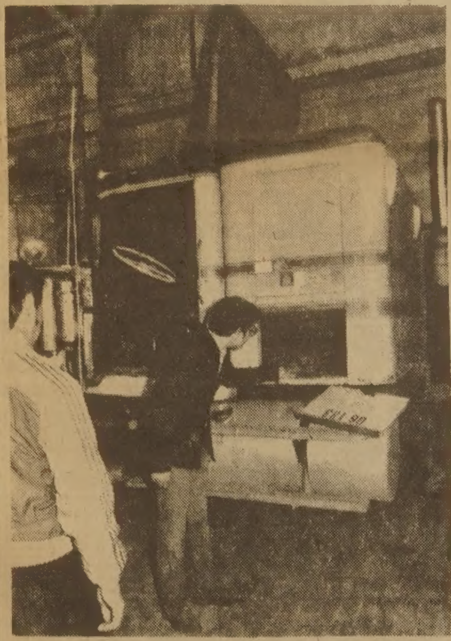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는 불법입국자에게 최고 5년형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지만, 이를 구애치 않고 국경을 통한 밀입국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버팔로 이민국 부책임자인 빌·부루스데일씨는 세계가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했다.

이민당국자는 불법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면 크게 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스타지에서〉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밀입국자를 싣고가다 발각된 중형트럭 뒤 비밀은신처를 검색하고 있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J. SHIFMAN & SONS LIMITED
54 Wingold Avenue, Toronto, Ontario M6B 1P5 • (416) 781-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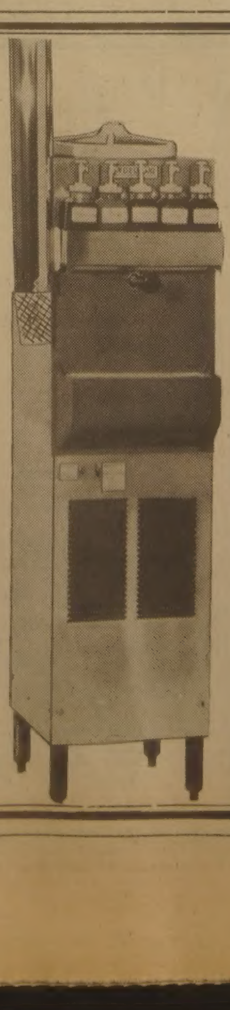
당신 자신의 기계를 소유할 때는

75% PROFIT

판매이익은 75% 이상 입니다.

ㅁ5병 및 펌푸
ㅁ1컵의 조제톡
ㅁ밀받침대도 포함되었음

※기계싸이즈는 15인치 × 15인치로써 일체 물이나 배수구가 필요없음
아무 플러그에나 낄 수 있음(간단하게 사용편리)
자세한 내용은 ☎781-6667로 연락바람. *담배, 캔디, 종이류도 전문취급



** MODEL 100
STOELTING
SLUSH MAHCINE

〈90일간 모든것 일체보증〉

"女性의「신체적 美的손상」입고싶지 않다"

유방癌

근육조직 완전제거 않고 종양부분만「럼프 手術」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종양의 크기가 환자의 손톱크기보다도 작은 경우 종래 유방절제수술대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많은 미국여성들은 유방절제에 의해 성적인 자존심을 상실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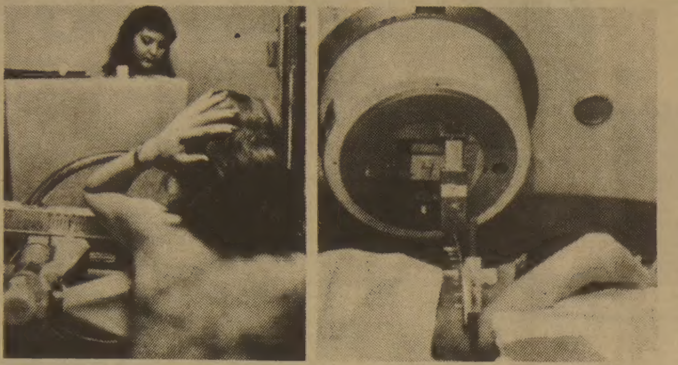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은「럼프제거수술」이라는 여성의 미관을 덜 해치는 방법을 택할수 있다.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이 방법은 그 효용에 대한 의사들의 많은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점차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완전한 유방제거를 지양하는 이 방법은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유방과 그 밑의 근육조직 그리고 겨드랑이의 임파결절까지 모두 제거해야 했다.

제거수술을 받을 경우 여성들은 미적 손상뿐 아니라 부적절한 임파액의 배출로 팔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미국 암 연구소」가 1천 7백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슴근육은 그대로 남겨둔채 유방만 제거하는「완화된 철저수술」을



▲렌트겐선 유방검사(왼쪽)와 방사선치료장면(오른쪽) 미암협회는 최소수술을 위한 방법들의 명백한 효과를 광범하게 연구중에 있다.

방사선치료……美觀은 좋지만 아직은 完治등 效果는 미지수

받은 여성들도 철저한 제거수술을 받은 여성들 못지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버팔로소재「로스웰파 메모리얼 연구소」가 시행한 5만회의 유방암수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완전 절제수술횟수는 10년전 전환자의 50퍼센트에 반해 오늘날 3퍼센트 정도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보스턴 방사선치료 종합 연구소」의 제이·해리스박사는『사람들이 이제는 완전절제 수술이 럼프제거수술보다 반드시 효과적인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많은 의사들은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실시되는 완화된 철저수술 혹은 단순 유방제거수술도 많은 경우에 있어 꼭 필수적인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방렌트겐검진과 유방자아검진법에 의해 유방암은 종양이 미소하고 인근 임파결절에 까지 확산되지 않은 단계인 초기에 발견되기 쉽다.

초기발견시 환자의 생존율은 40년대의 78퍼센트에서 87퍼센트로 증가했다. 더구나 여성들은 수술로인해 초래될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의사들도 여기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보스턴에 자리잡은「터포츠-뉴 잉글랜드 메디칼센터」의 외과의 더글라스·마찬트박사는『더욱 많은 여성들이 되도록 수술을 피하기 위해 여러의견을 듣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매서추세츠주등 몇몇주는 의사들이 암종양을 조기 발견하였을 경우 환자들에게 유방제거수술외의 대안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유방제거수술의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한가지 방법으로 종양이 자라고 있는 가슴부분외 파이모양의 사분원을 임파결절을 따라 제거하는 부분제거수술이 있다.

이보다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것은 럼프제거수술로서 의사는 단지 종양과 종양이 침범치 않은 주위의 약간의 조직만을 도려내는 방법이다. 어떤 의사들은 생검법에 의해 암세포가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임파결절을 그대로 두기도 한다. 이럴경우 환자들은 발견되지 않은 암세포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5내지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된다.

해리스 박사에 의하면 방사선치료에 의해 여성들이 메스꺼움과 탈모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영국에서 20년간에 걸쳐 실시된 최소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고무적이지만은 않다. 런던의「로얄마스덴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중 30퍼센트가 암이 재발되었다는것.

상·반되는 이런 결과를 놓고「미국암 연구소」는 좀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 유방절제수술이나 럼프제거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광범하게 연구하고 있다.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는 초기 유방암 환자들은 미용상 고려와 치료의 불확실성중 하나를 택해야만 할 입장에 있다.

☎ 533-2361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어느 모임에서 방금 만난 사람에게 차후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제대로 얼른 말이 안나온다.「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연락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 get in touch with~ 라는 숙어를 사용하면 된다.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또는 contact or reach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

How can I contact you?

How can I reach you?

다 같은 표현이다.

또한 헤어질때는「앞으로 서로 연락합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Let's keep in touch. 라고 하면 된다.

A: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B: You can reach me by calling 878—1700.
A: Are you at this number all the time?
B: No. You can reach me at 262—7300 after five.
A: Thank you.
B: You're welcome.

A: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연락할 수 있나요?
B:878—1700으로 전화하시면 제게 연락됩니다.
A:이 번호로 항상 연락이 되나요?
B:아니오. 다섯시 이후에는 262—73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A:감사합니다.
B:천만에요.

*get in touch with:~와 연락을 취하다.

*Are you at this number?

직역을 하면「이 번호에 계십니까?」라는 말인데 이는 곧「이 번호로 당신과 통화가 됩니까?」「당신과 연락이 됩니까?」라는 뜻.

이연재물의 필자가쓴「생활영어」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연재소설〉

혼돈 ㉚

글 이대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덕기, 너는 여기서 차의 엔진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영수는 태영의 집에서 한 블럭쯤 떨어진 곳에 차와 덕기를 남겨두고 수한과 태영이를 데리고 태영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지?"

"없을 거야. 매달 두번째 토요일이 곗날이었으니까 분명히 오늘도 계하러 갔을 거야.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잖아."

불안스럽게 걷고 있던 태영이 속삭이듯이 말했다.

태영의 집은 어둠과 침묵에 싸여있었다. 영수는 태영과 수한을 집 뒷벽에 붙어 서있게 하고,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수한이는 여기 계속 붙어서서 망을 보고 있어. 누가 오거든 이 위에 있는 유리창문을 두드려."

영수는 수한을 남겨두고 태영과 함께 옆문으로 다가갔다.

"장갑을 끼고 문을 열어."

영수는 준비해온 장갑을 태영에게 건네주고, 자기도 장갑을 끼었다. 태영이 장갑을 끼고 잠시 머뭇거리다 열쇠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었다.

"안 열어지는데···"

"그럴리가 있니? 침착하게 다시 해봐."

"아니야. 열쇠는 들어가는데 돌아가지가 않아."

"정말이야? 이리 줘봐. 열쇠를 줘봐."

영수는 태영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듯이 받아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열쇠를 돌렸다. 좌우로 아무리 돌려도 열쇠는 꽂혀만 있을 뿐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에 열쇠를 바꾼 것같애."

지켜보고 있던 태영이 맥빠진 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 이대로 가면 우리들의 사기가 시들어 버릴 거야."

어디선가 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바싹 긴장을 하며 태영과 함께 몸을 벽에 붙였다.

아무리 돌려도 열쇠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고…

"벌써 올리는 없는데·"

태영이 수근거렸다.

"입 다물고 있어."

달려오던 승용차가 태영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꺾어 들어오며 강한 헤들라이트를 비추었다.

"재수에 옴 붙은 날인가 보다."

태영이 벽에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중얼거렸다.

"차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도망가!"

태영이 턱을 덜덜 떨며 겨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승용차는 곧 뒤로 물러나 방향을 바꾼 다음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휴— 괜한걸 가지고 바싹 얼었네."

영수가 한숨을 길게 쉬며 벽에서 몸을 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간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태영이 멍청히 서서 중얼거렸다.

"이 애가! 너 니네집이라서 그러는 거니. 잔소리 말고 따라와!"

영수는 겁에 질려있는 태영의 소매를 붙들고 수한이 있는 뒷뜰로 갔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온 거야?"

벽에 붙어있던 수한이 가슴에 손을 대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야, 아무도 오지 않았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온 차였어. 그것보다 난처한 일이 생겼어. 태영이 가지고 있는 키가 맞지 않아."

"키가? 그럼 괜히 놀라기만 하고 헛탕을 치게 됐네."

영수의 말을 들은 수한이 빈정거렸다.

"염려 말아. 헛탕은 치지 않을 테니까. 혹시 몰라서 내가 준비해온 유리칼이 내 차의 트렁크에 있어."

"그럼 유리창을 깰려고 그러니?"

이미 겁을 먹은 태영의 목소리는 사정 없이 떨리고 있었다.(계속)

음주운전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실종된지 하루만에 다시 어미의 품에 안긴 여우원숭이(아래)와 잃어버린 새끼를 찾은 어미. 야행성 짐승이라 눈이 크고 모유를 먹지 않으면 생존치 못한다는 속성이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실종하루만에 어미품에

E.T.별명붙은 새끼 여우원숭이

(로스엔젤레스)24일 이곳 동물원에서 실종됐던 희귀종 여우원숭이(Lemur)(본보25일자참조)가 실종하루만에 다시 어미의 품에 안겼다.

이틀안에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해 죽을 것이라고 발표한 동물원 당국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짐승을 되돌려 온 것.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실종소식이 발표되기전 훔친사람으로 사료되는 한 사나이로 부터 50달러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여우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야행성 짐승이며, 두눈이 큰 것이라는 것과, 머리에 흑백색의 반점이 있으며, 모유를 먹지 않으면 생존치 못한다는 속성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축하예배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펜티코스탈교회를 개척하여 이제까지 3년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써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봉사하여온 심상대전도사께서는 지난 5월4일 런던(온타리오)에서 개최된 펜티코스탈서부노회 주관 년차총회에서 약1,500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15명의 남자목사와 함께 목사((MINISTRIAL LICENSE FOR WOMEN)안수를 받으셨읍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촐한 축하예배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 하 예 배

일시 • 1983년 6월12(주일) 오후3시
장소 • 본교회(401×JANE S.)
300 QUEENS DR. TOR
전화 • 223—1914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교우일동

축

하루빠른 고국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토론토한국일보
일간2주년기념

토론토한국일보의 날로 성장함을 축하하며 교민사회의 건전한 거울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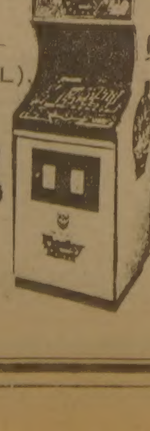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원일동

비데오 게임 머신

가게를 경영하시며 비데오게임 머쉰을 소유하신분들께 희소식을 알립니다·

본사에서는 종전의 5할제에서, 6할제로 이익을 여러분께 드리며 가장 이윤이 높고 인기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겠읍니다.

□즉시 수리
□새 기계
(NEW MODEL)
항상 보유



6할의 이익

☎924—5597
대표 박 용

춘계 연세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춘계 연세 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가를 바랍니다.

□장 소 : 리치몬드힐 골프클럽
□시 일 : 1983년 6월4일(토)
오전 9시30분
□참가비 : $35(디너및 그린피포함)
□연락처 : 이 갑(445—6704)
성수용(292—6430)
문영환(923—3846)
□마 감 : 6월2일

연세 동문회

建設업체 폭리·代金늑장등
下請횡포 뿌리뽑는다
合同조사반 수시로 投入
위반하면 入札자격 박탈도

정부는 24일 공정거래법을 발동하여 건설업계의 고질인 하청공사를 둘러싼 대기업의 횡포와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감사원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건설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투입, 오는 연말까지 건설업계의 下都給거래 실태를 수시로 조사, 대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도급률을 불평등한 계약이나 부당한거래조건을 강요하는등 『下都給공정거래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동안 정부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총건설공사의 51%에 해당)에 입찰할수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조치외에도 ①하청업체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計座移替제도의 실시 ②대기업이 하도급을 줄때 하청공사대금을 원래공사대금의 75%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하는 하청계약사전심사제 ③공사설계와 감리를 외부에서하도록 의무화하는 외부감리제의 도입등 일련의 제도개선작업도 아울러 추진, 오는 6월말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보완등 작업을거쳐 7월부터 전면실시키로했다.

정부는또 거래질서의 공정화를위한 업계의 자발적 참여도촉구, 건설협회산하에 불공정거래 고발센터와 하도급 공정화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유도하고 오는 27일에는 果川정부청사회의실서 전국5천여 건설업체대표들이 모인가운데 「건설하도급 공정화 촉진대회」를 열어, 공정거래를 다짐하기로했다. 이에앞서 지난3~4월 정부는 관계부처실무자로구성된 합동조사반을투입, H건설, D건설, D산업등 국내굴지의대형건설업체와 이들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해본결과 ▲대건설업체가 산하업체에 하청을줄때 매기는 하청공사대금이 원청공사대금의 60%밖에안되고 ▲대금지불이 4~5개월씩 지연되는등 대기업들의횡포가 심한것으로밝혀졌다. 대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손하나 대지않고 40%이상씩이나 중간마진을 따먹고 공사는영세 하청업체에 헐값에떠맡기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政治懸案타결 모색
與野총무 접촉…各黨대책회의 부산

與野는 6월 임시국회소집문제를 포함, 당면한 政治懸案문제에 대한 타결점을 모색하기위해 24일 총무회담을 갖는한편 各黨은 각각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상오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3黨 총무들은 빠른시일안에 정치관심사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공동노력 한다는데 의견을같이하고 各黨의 內部의를거쳐 25일상오 다시會同, 再論키로 했다.

이날 林鍾基民韓黨총무는 정치현안과관련, 民韓黨이 제기한 金相浹국무총리면담요청의 이유및내용을 설명했는데 특히 『빠른시일내에 사태수습이 되어야한다』고 설명한데대해 李鍾贊民正총무는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위한 방안을 黨에서 협의후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회담후 李民正총무는 『黨과의협의를 거쳐 필요할경우 정부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정치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당이 책임져야하므로 정당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있을수있으나 현 단계로서는 밝히지 않는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林民韓총무는 『이날 회담에서는 국회가 모든문제를 수렴하여 해결토록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25일의 총무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일자와 의사일정등 구체적내용을 합의케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民正黨은 이날상오 中執委常任委와 中執委전체회의를 차례로열고 최근의정치관심사와 6월 국회소집에서 다룰문제들을 협의했으며 이회의가 끝난후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는 吳世應정무장관과 1시간동안 별도의 鳩首會議를갖고 현안문제대책을 토의했다.

金琫泰대변인은 『6월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黨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民韓黨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현안문제를 집중 논의, 黨이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金文元民韓黨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특히 당면현안문제와 관련, 당무회의의 결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柳漢烈사무총장은 보고를통해 사태의 해결을 위해 在野과 계속 접촉중이며 民正黨측과도 접촉을 시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상오에열린 國民黨의 당직자회의는 6월 국회소집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이의 관철을위해 黨3役이 노력키로 했다.

이날 金鍾哲총재는 黨3役이 다각적인 접촉을벌여 임시국회소집에 대한黨의 주장을 관철토록 하라」고 지시한후 『6월임시국회에서는 당면문제를 당당히 다루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印下院의장 離韓

印度의 발·람·자카印度하원의장 등 印度의원단 8명은 24일간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24일상오 KAL편으로 離韓했다.

地平線

우리나라의 청자는 그발생연대가 11세기 중엽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고 있다. 그러던것이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전북고창군의 아산댐수몰예정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큰 옛청자가마터를 발견함으로써 그발생한을 더 올려잡지 않을수 없게 된것같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도자기의 나라로, 특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다같이 세계도자기사에서 크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형이나 유약의 아름다움에서 가위 독보적이라고 해야할 찬사를 받아오고 있으면서도, 막상 각시대별의 편년이나, 지역적인 특색과 같은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지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원광대학에 의한 고창청자요지의 발견으로 지금까지는 중국 월주요에서만 굽다가 10세기 중반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으로 알려져 왔던 해무리굽청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구워진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청자의 발생상한을 1세기 이상 올려잡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근년에 들어 발굴이 되었거나 진행중인 3국시대 내지는 통일신라 사찰인 미륵사, 감은사, 황룡사등지에서 발견된 해무리굽청자편들은 중국의 월주요에서 구워진것을 수입해서 썼을것이라던 학문적 추정도 재고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학문적 수확도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댐건설공사의 여덕이다. ▼하기야 도자기의 본고장이라고 해야할 중국도 도자기사의 편년이 부실하기로는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던것이 지난 76년부터 8차례의 해중탐사와 인양작업을거쳐 올해로 마무리 지어질 전남신안군지도면 앞바다의 근1만점에 이르는 청자가 우리와 중국도자사의 공백을 메우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경우가 다 학문적인 중요성이 높은데 반해서 그발견과 조사가 학문외적인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도자기사의 체계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종합적이고 정밀한 지표조사와 신안유물과 같은 중국도자기의 전문요원 양성등의 학문적인 대응이 시급할 듯하다.

蘇核潛艦 아시아겨냥
西太平洋배치 6隻중 2隻

【홍콩外電=聯】소련은 태평양지역배치 잠수함에 적재한 核의 일부로 아시아지역의 목표물들을 겨냥하고있으며 이잠수함들이 전적으로 미국내의 목표물만을 겨냥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24일 美해군관계자들이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최근 2척의 소련잠수함이 베트남의 캄란灣을 기지로 활동하는 蘇함대에 추가로 배치됨으로써 西태평양지역에서 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수있는 소련잠수함은 모두 6척으로늘어났으며 그중 3척은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콩에기항한 제7함대기함 블루리지함상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같이 밝힌관계자들은 소련이 東海에 「양키」級과같은 구형잠수함을배치, 초계활동에착수했으며 여기엔 미국서부지역일부를강타할만한 射程의 핵미사일을정착해놓았다고밝혔는데 소련의핵미사일이겨냥하고있는 극동지역의목표물이 어느곳인가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밝히기를 거부했다.

이관계자들이 지적한 사실들은 소련이 유럽지역에 배치한 SS20핵미사일을 극동지역으로 이전시킬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주목할만한 소련의 極東전략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페루 動力省장관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4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페루의 페르난도·몬테로·아람부루動力鑛山省장관을접견, 환담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사정이 비슷한개발도상국끼리 무역, 기술면에서 협력하는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협력보다더 실효성이 있는것으로 상호발전의 큰계기가될것』이라고말하고 『그러한뜻에서 한국과 페루는 서로필요한것을 보완해주는 南南협력관계를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郵便요금 引上
내달, 편지70원·엽서40원

국내우편요금이 6월1일을 기해 오른다.

체신부는 24일 통상및소포우편료와 우편수수료인상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인상내역을보면 통상우편료가운데 보통편지(1종·봉서)가 현행 60원에서 70원으로 16%, 엽서(2종)는 30원에서 40원으로 33%가 각각 오르며 4종(견본·표본)및 5종(종자·잡종)도 소폭인상된다.

이밖에 소포우편료와 등기료등 수수료도 함께인상되는것으로 알려졌다.

◇3黨 총무 對坐 3黨원내총무들이 24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6월국회 소집과관련, 政治懸案 문제에대한 타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절충을 벌이고있다.

中共機납치범 6명拘束
檢察, 國際協約 준수… 4개法 적용

서울지검은 24일상오 중공민항여객기 납치사건의 주모자 卓長仁(35·중공遼寧省물자국설비공사차량계 회원)등 납치범6명 전원을 항공기운항안전법등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중공여객기납치범들을 모두 구속한 것은 항공기 납치범을 엄벌토록 의무화한 헤이그협약가입국가로서의 외무를 다하고, 항공기납치범들을 구속처리해온 국제적 사례를 참작한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들 납치범의 구속과함께 권총2정등 필요한 증거물도 압수했다.

납치범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죄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항공법·출입국관리법위반죄등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卓長仁등 납치범들은 평소중공의 정치·사회현실에 불만을 품어오던중 지난1월초순께부터 지난 5월2일사이에 주모자 卓長仁의 제의로 여러차례 모여 瀋陽발 上海행여객기를 납치,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에는 기장이平壤상공에서 「서울상공」이라고 속여 비행고도를 낮추어 3차례나 선회한뒤 거짓임을 확인, 권총으로 위협하며 남으로 기수를 돌리게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납치범들의 인적사항및 적용법조문은 다음과같다.

◇납치범인적사항

▲卓長仁(35·遼寧省물자국설비공사차량계회원·瀋陽市황고구태산로3단2호5동49호) ▲姜洪軍(23·瀋陽市체육학원보위처보위원·瀋陽市황고구태산로1단1호) ▲王艶大(27·遼寧省환경보호설비공장업무원·瀋陽市화평구민족가7단5리7호) ▲安建偉(22·瀋陽市체육학원보위처보위원·瀋陽市화평구승리가2단7리2호) ▲吳雲飛(33·廣東省광주市물자구매업) ▲高東萍(28·여·遼寧省물자국기전공사통계원·瀋陽市화평구13위로1단1호)

◇적용법조문

▲항공기 운항안전법 9조=폭력또는 협박 기타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한 죄를범하여 사람을 치사상케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9조의 1항=총포·도검·화약류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8 서울올림픽 中共, 참가示唆
體育委 간부

【東京=宋孝彬특파원】중공의 국가체육운동위원회 陳先부주임은 내년에 열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은 물론 88년 서울올림픽으로부터 2천년까지 4번에걸친 올림픽에 모두 참가할 예정임을 분명히했다고 24일자 일본아사히(朝日)신문이 北京특파원발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陳이 중공관영통신·新華社가 발행하는잡지 「瞭望」최신호(5월20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中共이 88년 서울올림픽참가 시사」란 제목을붙여 1면3단의 크기로 이기사를 취급했다.

金총리, 釜山시찰

金相浹 국무총리는 24일 釜山시청과 慶南도청을 차례로방문, 崔鍾鎬시장과 李圭孝지사로부터 市政과 道政에관한 보고를 각각 받았다.

金총리는 市政과 道政에 관한 보고를 받은뒤 숙소인 釜山 조선비취호텔에서 釜山慶南지역 각계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金총리는 이날 釜山시청에서 市政보고를받고 『北傀는 오는 10월의 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를 방해하기위해 우리나라의 각종대형사건과 사고를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등 대형사고 예방과 산업시설 경계에 철저를기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관심사」가 생겼나?!…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주택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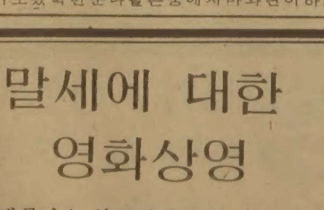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말세에 대한 영화상영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말세에 있을 신자들의 들림받음과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에 따르는 환난기에 관한 영화 "Years of the Beast" (영문판 1시간38분상영)를 아래와 같이 상영코져 하오니 많이 오셔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도 많이 참석키 바랍니다.

□일시 : 1983년6월4일(토) 오후8시
□장소 : 새예루살렘교회
☎429-2685, 429-1430



새예루살렘교회
남전도회

신간서적

좀더 알고 믿게하는
「길벗들의 대화」
—오강남 저—
(종교철학박사 사스카치완주 르자이너대학)

*우리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종교의 실체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오교수의 예리한 분석을 들어보자.

※필자는 최근 토론토한국일보에 약20여회에 걸쳐 「현대적인 속담풀이」를 연재, 큰 호평을 받았다.

가격 : 10달러
판매처 : 토론토한국일보 총무국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533-2361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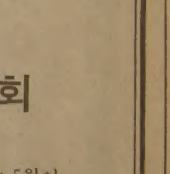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빈
(416)928-3335
(R) 532-9581
스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스위니펙(이영호)204-783-0007

야유회및 총회

동창여러분 안녕하신지요.
하늘도 높고 푸르른 이화의 달 5월이 되었읍니다.
항상 이때면 갖는 우리 동창들의 야유회및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갖으려 하오니 화창한 날을 맞아 동창여러분들 온 식구 모시고 나오셔서 맘껏 뛰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 : 6월4일(토요일) 11시 AM
장소 : DOWNSVIEW DELLS PARK
(우리 단골장소)
준비 : ①각 가정의 자랑꺼리 음식 한가지씩
②동창회에서 갈비와 음료수 연료를 준비할 예정임.

문의처·김양자 1-895-7594
이재숙 743-0432



이화여고 동창회

"對美 強硬자세로 鄧외교路線 수정"

中共、연말에 새指針

美LA타임즈 보도

【로스앤젤레스=聯】中共의 실권자인 鄧小平은 그의 親美정책이 심지어그의 측근인 당총서기 胡耀邦을 포함한 黨·政고위관리들로부터도 심한 비판을 받게되자 금년말께 중공의전반적 對美관계를 재편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중공외교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수있는 조처라고 美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23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정통한 중공소식통들을 인용,美·中共관계가 중공고위지도자들간에 점차 심각한 內訌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들은 對美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의 對美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이같은 방안은 지난 3월말 黨정치국 서기국 합동회의에서 나온것이나 이 회의에서의 토론이 매우 민감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공당 政중위급 관리들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개략적 윤곽을 통고받게 됐다고 전했다.

◇"무기競爭말라" 五旬節시위

오순절인 23일 기독교도 20여명이 워싱턴국회의사당에 모여 무기경쟁의 종식을 촉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있다。이들은 의사당안에서 불법으로 기도한 혐의로 곧 의사당경비대에체포됐다. 【워싱턴UPI電送=聯合】

레바논陣地 강화 國境에 탱크集結

시리아

【베이루트AP=聯】시리아군은 레바논과의 국경에蘇製신형T 72탱크를 집결시키는 한편 레바논 베카계곡에 주둔중인 기존시리아군 진지를 강화하기위해 지뢰를부설하고 있다고 레바논의 특파원들이 24일보도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이같은 군사력증강에대처, 경계태세를 취하고있다고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수상이 이날 예루살렘에서 밝혔다.

이스라엘軍과 시리아軍은 일부 지역의경우 불과 1백50m의 거리를두고 대치하고 있다.

한편 다마스커스에서 팔레스타인 민주해방전선(PFLP) 지도자인 나에프·하와트메는 아랍 국가들에 대해 레바논의 對이스라엘 양보를 이유로, 레바논을배척할 것을 촉구했다.

美、10%는 西獨에
신경가스 爆彈 수십만發 비축

【워싱턴AP=聯】미국은8인치평사포및 155mm 곡사포용의 치명적인 신경가스포탄을 수십만발을 비축해두고 그 가운데 적어도 10%의 포탄을 서독에 배치해두고 있다고 24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국방성이 미상원군사위원회가 이달초 보낸 질의서한에대한 회답에서 그와같이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방성은 155mm포용의 새로운 2중화학포탄생산비 4천8백1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구형의 신경가스포탄보다도 취급이 안전하고 수송하기가 더 쉬운것으로 알려졌다.

내년4월~5월初 바오로 敎皇 訪韓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예정보다 6개월앞당긴 내년4월말이나 5월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것같다.

천주교주교회의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城北區敎岩洞상지회관에서 춘계정기총회를열고 당초 내년10월로 예정됐던 교황의한국방문일정을 봄철로 앞당겨 추진하는 안건을 협의하고 이에따른 2백주년기념행사준비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문제를 논의하고있다.

페루軍·左翼 게릴라 戰鬪
한週간 百69명死亡

【리마AP·UPI=聯】페루중부산악지역에서 3년간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左翼게릴라반군은 지난 한주일동안 최악의 유혈격전을 벌여 1백6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정부군사령부가 23일밝혔다.

군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군과 경찰이 아야쿠초지역전투에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毛澤東주의 게릴라叛軍1백19명을 사살했으며 경찰회생자수는 2명에불과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게릴라들이 이기간중 아야쿠초지역을공격, 40명의 농부와 8명의 민간인이사망했다고덧붙였다.

이로써 지난4월과 5월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로 인한 사망자수는 5백6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2월29일 페르난도·벨라운데 대통령이 게릴라거점지역을 장악하기위해 군대를 파견한이후 1천명이상이 사살된것으로 軍보고서는 집계했다.

南阿 火藥庫에 새 불씨

—南阿共의 모잠비크領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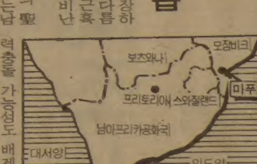
흑인저항단체의 폭탄테러행위에 대해 백인정부군이 보복공격을 가함으로써 南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분규는 유혈사태의 악순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南阿共은 23일 공군기를 동원, 불법화된 흑인해방운동단체 아프리카국민회의(ANC)게릴라의 본거지로 알려진 인근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부근의 ANC기지들에 전격적인 보복공습을 가했다.

南阿共정부는 이 공습이 지난 20일수도 프리토리아의 공군본부 앞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폭발사건으로 17명이 숨지고 2백여명이 부상당한 최악의 테러사건에 대한 보복공격이라고밝혔다.

남아공은 ANC게릴라의 방어용우산역할을 해온 모잠비크의 미사일기지 1개소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침략행위와 다름없는 이번 사태는 인근흑인국가들의 집중적인비난을 받고있다.

모잠비크가 ANC의 聖域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남아공의 주장에 반해 모잠비크 좌익정권의 사모라 마셸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있어 이번사태에 대한 모잠비크의 대응조치에 따라 양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게됐다.



인구가 흑인2천1백만, 백인5백만으로 구성된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정책으로 유명한 백인소수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흑인저항단체들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단체가바로ANC이다。

ANC는 1912년에 결성되었으며 소련의 영향을 받는 남아프리카공산당의 지도하에 반정부투쟁을 전개하다 지난 61년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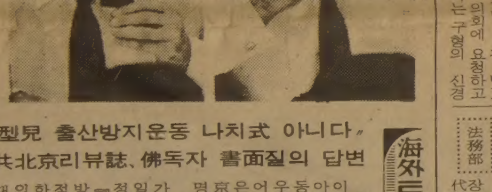
게릴라지원 黑人國들 술렁
상황따라 兩國충돌 가능성

법화조치에 따라 지도자들이 국외로 추방당했다.

국외로 추방된 ANC는 지난22년간 백인들의 생명과관계된 테러행위는 피하는등 온건한수단에 호소해왔다. 이에따라 남아공정부도 지난2년간 강화되어가는 ANC활동을 진압하는데도 주로 경찰력을사용하면서군대의투입은피해왔다。그러나지난20일ANC가이런 자제를깨고 유혈테러사건을벌인 사실은 ANC안에서 과격파지도자들의 수가늘어났다는 증거이며 전략상의 변화가 오고있음을 의미한다。

흑백분규는 이를 조정할 중개세력도 없이 직접충돌해왔던 예에 비추어 남아공정부가 행한 3일만의보복공격은 앞으로 유혈사태가 악순환되는 것을 양측서 불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한다.

남아공내에 ANC와 함께 흑인해방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는 중공의 영향하에 있는 범아프리카주의자회의(PAC)가 있으며 이번사태로 PAC가 ANC와 행동통일을 모색할가능성도 높다고 지적되고있다. 【朴來富기자】



◇레이건의 왕성한食欲 레이건美대통령이 23일 워싱턴지역 고등학교 우등생들과함께한 야외식사에서 아이스바와 닭튀김을 열심히 먹으며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고 있다。【워싱턴23일AP=聯】

海外토픽

"畸型兒 출산방지운동 나치式 아니다"
中共北京리뷰誌、佛독자 書面질의 답변

중공정부가 벌이고있는 기형아출산 억제운동은 나치式의 우량아를 만들어 내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北京리뷰지가 해명.

北京리뷰지는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중공정부가실시하는 『기형아 출산방지』책의구체적내용을 묻는 한 프랑스 독자의 서한질의에 대해 중공의 이같은정책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위해 직계친족 또는 3寸까지의 친족간의 결혼등근친혼을금하는등의조치를담고있다고설명. 【聯】

加전투기 추락은 새와의 衝突때문

서독프랑크푸르트시부근 라인·마인미공군기지상공에서 지난22일 곡예시범비행도중 추락한 캐나다전투기의 사고원인은 새와의충돌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캐나다공군대변인이23일말했다. 엘·디터소령은캐나다·서독·미공군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나 몇주일지나야 확실한 사고원인이 밝혀질것같다고말했다. 【UPI】

埃에 1백60세老人…"세계最長壽"
18세기 물물교환 소년시절을 회고

세계 최장수노인은 이스말리아의 아씬마을에 사는 1백60세된 하자이·이브라임·엘·그리미 노인이라고 이집트의 아랍뉴스紙가 23일 주장. 이 신문은 1823년생인 이 노인이 자신의 소년시절을 회고하면서『우리들은 돈이라고는 거의 만져보지 못하고 살았으며 모두가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회고했는데 당시 계란24개에 빵한덩이、암소1마리에 밀 20컵이 교환되었다고. 【IINA】

동물실험 焚身항의 석면옷입고 불붙여

베를린에서 동물실험에 항의하던 한 사나이가 석면으로된 옷을 입고 수많은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솔린을 끼얹은후 그위에 성냥불을 그어대 마치 인간횃불처럼 되었다고 경찰의 한 대변인이 23일 발표. 【UPI】

人事異動

法務部 ▲서울구치소장 朱竝杜(職代) ▲大邱교도소장 李廷文(〃) ▲青松교도소장 金明植(〃)(24日字)

援護處 ▲大田원호청장 李鼐承(국립원호원교수부장) ▲大邱원호청장 李相律(大田원호청장) ▲국립원호원교수부장 林雨植(大邱원호청장)(26日字)

韓一銀行 ▲忘憂支店長 李永三 ▲秃山〃 魯鎭表 ▲凡一〃 姜大甲(25日字)

社說

戰略危機속의 世界
—유럽 미사일協商을 짚어본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는 새冷戰체제에 직면해 가고 있다.

79년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데이어, 최근에는 소련이 시리아에 대량의 군사장비를 공급하여,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결기운이 팽팽해져 가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局地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짙어져가는것만이 세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冷戰의 바람을 거세게 하는것은 아니다.

70년대까지만해도 核무기는「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에대한 억지력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어 무기의 질적개발·정밀화로, 그 구실은 매우 희미해졌다.

核미사일의 명중도가 향상해감에 따라 美蘇는 核전쟁을 억지하는 전략보다 核전쟁을 싸워 이기는 전략을 모색하는것 처럼 보인다. 이제는「核전쟁방지를 위한 核억지력」이 아니라 오히려「核전쟁에 패배하지 않기위한 核억지력」이 모색되는 경향이다.

새冷戰속의 이같은 戰略위기상황에서 세계사람들이 한가닥희망을 걸고있는것이 지난17일 재개된 유럽중거리核戰力감축을 위한 美蘇간의 제네바협상이다.

미국과 나토국가들은 소련이西歐를향해 배치해둔 약 2백50基의 중거리 核미사일과의 균형을 위해 5백72基의 퍼싱Ⅱ와 크루즈중거리 미사일을 금년말부터 西歐에 배치하기로 79년합의했다. 약2백50基의 소련이동미사일SS20에 대항하기위한 5백72基라는 미사일수가 나온것은 SS20미사일하나가 3核탄두를 적재하는것과 연관된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이 西歐를 겨냥한 SS20 미사일을 철폐하면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전연 배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零의 선택」안을 81년 내놓았으나 소련은 이를거부했다. 소련은 英佛이 이미 1백62基의 각종 核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련과 나토간에 核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련은 특히 서독에 배치될 1백 8基의 퍼싱Ⅱ미사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퍼싱Ⅱ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된지 7분후에 소련내의 중요전략목표에 도달될수있을뿐 아니라, 그 명중오차는 50m정도로 좁혀들었다. 70년대말까지만해도 美蘇 고성능미사일의 명중오차는 약2백m였다.

美蘇간의 核전쟁으로 까지 번지지 않고 유럽이 제한 核전쟁터가 될수있는 두려움으로, 유럽사람들의 反核운동열이 높아지자, 미국은 소련이 SS20미사일수를 줄이는 만큼 배치예정인 중거리 미사일수를 줄일수있다는 절충안을 연초에 제의했다.

소련은 이잠정타협안을 일단거부했으나, 지난 5월초 소련이 西歐를 향해 배치한 미사일수를 줄이고 적재 탄두수도 계산에 넣는다고 말하여 서방측의 주장에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유럽戰域에서 감축된 SS20미사일을 미국의 核基地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對美군사협력을 증대해가는 일본을 겨냥해 아시아쪽으로 이동할수 있다고 지난 4월초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로미코의 발언은 東아시아 여러나라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이렇게 보아오면 세계冷戰과 전쟁회피 戰略위기를 누그러뜨릴수 있는 실마리가 유럽중거리 미사일감축협상에서 찾아야만 할것같다. 그 결과는 韓半島 주변정세에도 곧장 영향을 미친다.

제네바 중거리미사일 협상타결은 세계긴장완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다. 하지만 이협상에는 레이건행정부와 안드로포프정권의 위신과 美蘇간 힘의 優位경쟁이 겹치고, 유럽의 여론및 東아시아정세까지 걸려있어, 그타결이 결코 쉬운것 같지는 않다.

여하간 지금같은 戰略危機속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사일협상에 대신하는길을 찾기란 더어려운 일이다.

敎育費와 敎育機會

유치원에서 大學까지의 교육비가 작년의돈가치와 학비기준으로는 1천6백94만7천8백원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힌바에 의하면 작년중 公교육비는 3조5천23억원이었고 私교육비는 2조1천3백76억원, 합하여 5조6천3백99억원이었다. 이규모는 작년 GNP(국민총생산)의 11.6%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거액의 교육비지출이 우리 형편에 비추어 많으냐 적으냐하는것은 누구나의관심거리다. 아직은 낮은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교육비부담은 무거운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天然자원이 풍족치못한 처지에서 오로지 기댈것은 높은 교육수준의 人力자원밖에 없다는 우리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관찰하면 이를 결코 많다고 할수는없다.

先進國인 경우 中·高等학교의 취학률은 대개 적령인구의80~97%까지에 이르고있으며 대학과정은 적령인구의 56%까지인 나라도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은 이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취학률은 앞으로 계속 높여야할것이다.

이번조사는 교육비를 公교육비와 私교육비의 두가지로 구분하고있다. 公교육비는 설립자가부담하는것과 學父母부담인 등록금을 합친것이다. 궁금한것은 이 公교육비중 학부모가부담하는 돈의 규모와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부담이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의 기회균등정도가 높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그 자체로서 크게 바람직한 일인동시에, 우리가 志向하는 국민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과제에서 가장 근본되는 요건이다. 학비부담이 벅차기때문에 지금 中學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소년은, 앞으로 몇10년뒤에도低所得低生産性職에 머무르고, 상대적 빈곤을 상속받게될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것은 중학교이상의 교육과정에서, 私立보다는 國公立학교의 公교육비가 더 많은것으로 나타나고있는 사실이다. 이는 두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로는 國公立학교가 비용면으로 그만큼 충실하고 私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서 오는 불균형이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私學에 취학한 子女의 가정이 부담하는 公교육비가 國公立보다는 더 많은 현실이다.

이 두가지의 문제점은 특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학교가 배정되는 中·高等학교의 경우 그대로 방치되어서 안될것이라고 믿는다. 국가가 표방한 平準化목표에 역행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국과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별로 適正교육비를 조사연구할것을 요망하고자한다. 그와같은 연구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학비지출상으로 어느정도 충실한가를 재는 귀중한 尺度가 될것이다.

또 학비중 公共의 支出과 家計支出分의비중에 대해서도 지침이 세워졌으면 한다. 학비의 家計부담비중이 크면 클수록 교육기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많을 이치다. 그결과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누릴수있는 公共교육혜택에서제외되니, 이를 또하나의 貧益貧현상이라고 해야할것이다.

政局往來

「정치현안」 해결방안 모색위해 初夏정국 腐心

한국의발전 참고될것

全斗煥대통령은 24일상오 페루의 페르난도·몬테로·아랄루動力鑛山省장관과 환담을 나누면서『우리는그동안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구해왔는데, 무역등에 있어 보호주의 경향이 강한 中南美제국에게는 우리의 발전경험이 하나의 참고가 될것으로 믿는다』고 피력.

全대통령은 또『우리는 20여년전만해도 北韓공산집단의 武力침공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됐었으나 그동안 밤낮을 노력한결과 지금은 1人당 국민소득이 1천6백달러대에 이르게됐다』고설명.

몬테로장관은 이에대해『페루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전하면서『페루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배워갈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各黨입장듣고 眞意打診

24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朝餐을 겸해열린 3黨총무회담은 1시간동안 정치관심사에대한 각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眞意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회담후李鍾贊民正黨총무는『발표할 내용은 간단하다』며『3黨총무가 저간의 정치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국무총리면담요청을 하고있는 民韓黨의 林총무가그내용이무엇인지설명했다』고만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보도진의 끈질긴 질문에 몇가지내용을 설명하면서 民韓黨의 총리면담요청내용에 대해『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정치도의상 밝힐수없다』고滅口한후『나름대로해결를위한 腹案과 대책이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아니다』고 대답했다.

通常的인 문제만 논의

24일상오에 잇달아열린 民正黨의 中執常任委와 中執委에서는 정치현안문제가 거론되리란 예상과는 달리『언급되지않았다』고 金珞泰대변인이 설명.

상오9시부터 陳懿鍾대표위원실에서 40분간열린 中執常任委는 李鍾贊총무가 총무회담관계로 불참한채열렸는데이자리에서는오는 26일黨政책조정회의에李範錫외무장관을불러訪美성과를보고받기로하는등『通常的인문제』만논의.

회의후 金대변인은『회의에서 陳대표가 지방의 民心은 대체로 안정되어있더라는 要旨의 지방을 다녀온 소감을 피력했다』고전했는데 관심사의 논의여부에대한질문에는『관심사란 표현을 언론계에서 만든게 아니냐』고反問.

한편 中執委가 끝난후 權翊鉉총장과 李총무등은 吳世應정무장관등과 총장실에서 문을 닫은채 密談을 나누어 눈길을끌었다.

적극적黨論 마련해야

『정치적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24일 民韓黨 당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黨論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

회의는 먼저 柳漢烈사무총장과 林鍾基총무의『정치현안』과관련하여 보고했는데 柳총장은 오늘 아침에도 在野와 通話、民韓黨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林총무는『오는 총무회담에서 국회가 모든 문제를 수렴하여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

이어 徐錫宰의원은『적극적인 자세로 현안문제를 풀것』을 강조했고, 孫世一의원은『黨3役을 이 문제에 접근케 한것은 시의적절하나 黨의 공식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는 한시간 가까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종됐는데 柳致松총재는『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니 다함께 노력할것』을 촉구.

「福祉病」에 걸리면안돼

釜山市와 慶南道를 순시한 金相浹국무총리는 24일 하오 崔鍾鎬釜山시장과 李圭孝 慶南지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올해는 세계경제도 好轉되고 우리나라도 경제는 물론 여러분야에서 좋은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면서『모든 공직자는 합심해 이같은 분위기를 加速化시켜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金총리는 또『영세민 대책에만전을 기하고 복지시설을 계속확충해 나가야겠다』면서『그러나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성장의 果實을 고루 돌려주자는데 참뜻이 있으므로 요행 또는 자선을 바라는「福祉病」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이날 釜山行 새마을열차안에서 金和經철도청 차장의 안내로 식당과 객실을 둘러보고 승객들에게『여행에 불편없느냐』는등 물어보기도.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여름학교 안내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데이케어 프로그램

▲연령 3~4세
▲기간 7월4일~8월26일(8주간)
▲시간 오전8시~오후6시

금년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써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인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영어의 환경(유치원)에 준비과정없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심리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영어도 가르치며 한국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이번 탁아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Superviser Diane Morris씨를 모시고 영어교사1명, 한국인교사 3명으로 32명의 어린이들을 받아 드리겠읍니다.

1주에 $50(간식포함, 점심은 각자준비)

▲신청 원하는 요일을 기입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읍니다.

국민학교 프로그램

▲연령 5세~12세

▲한국어 : 무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여름학교입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과 토론토교육국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특수프로그램 : 한학생이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 등 8과목에 전문교사진이 지도함.

▲수영 : 일주일에 2번씩 토론토교육국, 또는 시경영 수영장에서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음.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야외활동 : 운동회, 소풍, B.B.Q., 졸업파티등을 통해 즐거운 금요일을 보냄.

▲수업료 : 한학생 $180, 둘 $350, 셋 $500.

▲학교버스 : 4대의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에 따라 노선이 정해집니다. 버스신청은 전화 :441-2986, 6월1일까지. 한학생$150, 둘$290, 셋$400.

▲신청 과목을 선택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6월15일까지 보내 주십시요.

한국어와 예능의 전당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중학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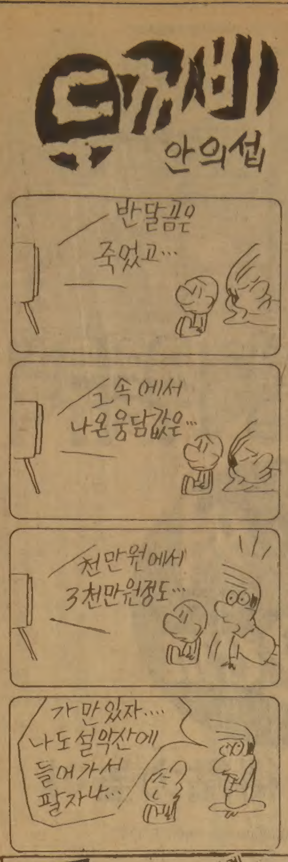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가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Rental을 알선해 줌.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콤퓨터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충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1 두과목을 택할땐 $250

★학생이 4명이하일땐 과목취소.



債券입찰 坪當평균 46만원

開浦현대아파트 買入총액 93億7千萬원

人氣는 31평형… 2群 2천1백39원까지
가장큰 58평형 1群은 최저5백80만원도

채권입찰제에 의해 첫번째로 분양된 開浦洞현대아파트의 채권입찰금액은 평당평균46만원, 채권입찰총액은 약93억7천만원인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시집계에 의하면 이번에분양된 31평형, 46평형, 58평형중 평균당첨금액이 가장높았던 평형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인 31평형 2군(3~11층)으로 69만원선이었으며, 당첨최저금액도 66만원선으로 다른평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평당 평균 당첨금액과 최저 당첨가격이 가장 낮았던 평형은 58평형 1군(1、2、12、13층)으로 평균당첨금액은 20만원, 최저당첨금액은 평당 10만원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31평형 1군의경우 평균당첨금액은 평당41만원, 최저당첨금액은 평당 36만원이었고 46평형1군은 평균당첨금액이 평당 23만원, 최저당첨금액은평당15만원 선이었다.

또 46평형 2군의 평균당첨금액은 평당 52만원、최저당첨금액은 평당 44만원선이었으며 58평형 2군의 경우 평균당첨금액은평당 55만원, 최저 당첨금액은 평당 44만원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아파트가격(평균)은 31평형1군이 채권액 1천2백71만원에 분양가 3천2백55만원을 합한 4천5백26만원이며, 31평형2군은 채권액 2천1백39만원과 분양가를합해 5천3백9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46평형1군의경우 채권액 1천58만원과 분양가 6천1백64만원을 합한 7천2백22만원, 2군은 채권액 2천3백92만원에 분양가를합한 8천5백56만원이됐다.

가장큰 평형인 58평형은 1군이 채권액 1천1백60만원과 분양가 7천7백72만원을 합한 8천9백32만원이 됐으며 2군은 채권액 3천1백90만원에 분양가를합한 1억9백12만원이 아파트가격이됐다.

각평형및 군별 당첨최저금액을 적용한 아파트값을 보면 31평형 1군이 채권액 1천1백16만원에 분양가를합한 4천3백71만원이며 2군은 채권액 2천46만원에 분양가를합한 5천3백1만원인것으로 나타났다.

46평형의 최저가격은 1군이 채권액 1천6백90만원에 분양가를합한 6천8백54만원, 2군은 채권액 2천24만원에 분양가를 합한 8천1백88만원이 됐으며 58평형 1군의 최저가는 채권액 5백80만원에분양가를합한 8천3백51만원, 2군의 최저가는 채권액 2천5백22만원에 분양가를합한 1억3백2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채권입찰제에의한 현대아파트의 당첨가격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경우 평당1백46만원~1백74만원인데 비해 인근의 기존아파트 가격은 평당 1백90만원선이며,국민주택 규모이상은 현대아파트가 평당 1백54만원~1백89만원인데 비해 인근 기존아파트는 평당 2백44만원인점을 감안, 전반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한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에따라 복덕방이나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보고 아파트건설주체인 한국도시개발에 당첨자명단제출을 요구、국세청과 합동으로 최종입주때까지의 전매행위를 단속키로했다.

한편 이날 집계에서는 최고당첨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계약을포기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입주권이 승계된다.

다음 채권입찰제가 적용될곳은 월말께 분양될 주식회사 한양의 狎鷗亭洞아파트와 可樂洞아파트이다.

◇채권매입입찰현황

평형	군별	세대수	평균당첨금액	최저당첨금액
31평	1	24	41	36
	2	54	69	66
46평	1	40	23	15
	2	90	52	44
58평	1	64	20	10
	2	144	55	44

(단위 : 만원)

40代남자 變死

【太白】23일 하오7시께 강원太白市黃池3洞산32의2 속칭 절골산 중턱에서 김원석씨(48·黃池2洞5통2반)가 머리에상처를입고 숨져있는것을 최윤철씨(46·여·黃池3洞 6통3반)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聯合】

변호사보수 定額制로

辯協, 규칙마련 착수금등 最高5백만원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착수금을 최고 5백만원 이하로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에따라 일정비율로 받도록하는「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규칙」을 제정、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따른 세부규정을마련하는대로 시행토록했다.

이 규칙은 민사사건의경우 소송가액 1백만원까지는 10%,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8%、5백만원을초과하는 부분은 5%등 소가에따라 1%(5억원초과부분) 내지 10%를 착수금으로 받되 산정금액의 30%범위내에서 증감할수 있도록 했다.

또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하면 착수금과 같은금액의 성공보수를 받을수있도록했는데 1·2·3심의 착수금 성공보수합산액은 승소금액의 40%를 넘을수없도록 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나 선고유예가 선고될때는 착수금의 2배, 집행유예때는 착수금과 같은금액, 형량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때는 착수금액의 범위 성공보수금으로 받을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규칙은 고소사건, 소년보호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5만원으로하며 고문변호사료는 월20만원이상으로 정하는한편 변호사상담료는 5천내지 1만원을 기본으로 10분초과때마다 3천내지 6천원을 추가로받도록했으며 법률문서작성료는 한건당 2만원내지 4만원으로 정했다.

대한변협이 새로만든 이규칙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받고있는 변호사수임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선을 정한것으로,일부 변호사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받아 사회의 지탄을받아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 보수요율

소송가액	착수금	성공보수
1백만원까지	10%	10%
1백만원초과	8	8
3백만원 〃	7	7
5백만원 〃	5	5
1천만원 〃	4	4
5천만원 〃	3	3
1억원 〃	2	2
5억원 〃	1	1

銃傷의한 腸출혈

반달곰 死因밝혀

속보=雪嶽山반달곰사건을 수사중인 束草경찰서는 24일 반달곰의 사인을 총상에의한 장출혈로 밝혀냈다.

이에따라 경찰은 束草市와 雪嶽山국립공원사무소·산림청등과합동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밀렵꾼조사에나섰다.

한편 해체된 반달곰은 표피가 37kg、쓸개(웅담)가 1백80g이나 나왔는데 경찰로부터 이곰을 인계받은 문화재관리국은 표피는 박제를해 동물원에 전시하고 쓸개는 검사를 거친후 공매처분키로 했다.

그런데 쓸개는 이를 말릴경우(건제) 6분의1로 무게가 줄어 약30g정도가 될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한약방의 시중시세는 한푼(0·375g)에 15만원정도로 이웅담의 순가격은 1천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내 야생반달곰의경우는 잡식동물로 동면을하기때문에 약효가 한층 좋다는 정평이나있어 공매과정에서 값이 더욱치솟을 것같다.【聯合】

女高生욕보여

청소년 善導委員 사칭

서울江西경찰서는 24일 金判成씨(56·상업·서울江西區新亭洞1010의6)를 미성년자간음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2월3일하오5시께 淸涼里 모경양식집에서 남자친구와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던 金모양(18·H여고3년·서울麻浦區上岩洞)에게『청소년선도위원인데 단속나왔다』며 金양의 학교이름과 집주소등을 물은뒤 다음날 金양의 집으로 찾아가『남자관계를 조사하겠다』며 서울道峰區牛耳洞 모산장으로 데려가 세차례에걸쳐 욕을 보였다는것.

金씨는 경찰에서『D시장 상인들로구성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가짜임이 밝혀졌다.

6명에 宣告유예

五松會사건

【全州】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李補煥부장판사)는 24일하오 1호법정에서 열린 五松會사건관련 피고인9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李光雄 피고인(42)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는등 징역4년에서 선고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레저붐 타고 렌트카로 둔갑

봉고車 脫線영업

임대비용 싸 需要 날로 늘어

「非사업용認可」무시…"차라리 陽性化를"

◇不法영업행위의 主役으로… 미니버스인 봉고차는 자가용이지만 입대료가 싸고 편리해 폭발적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끼어들고 있다.

자가용인 봉고차들이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인기가 올라간다싶더니 레저붐에 편승, 여행사용 렌트카로 둔갑하고있는 것이다. 이들이 법을어기고 여객운수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것도 문제지만 보험가입등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대형사고라도 나면 싸고편리한 맛에 봉고차를 빌어탔던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되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

수십대규모의 봉고코치대여업까지 등장한 추세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봉고코치이용에 대한 일반시민의 수요가 폭발적이라며 이를 제도로 선도해가는것도방법』이라면서 봉고를 자가용으로만 묶지말고 영업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권고하고있다.

봉고코치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단체의업무및 출퇴근용으로 효용가치가 높아 24일현재 K산업에서출고한대수가1만5천여대.

봉고차영업의 아지트는 서울시내 五壯洞, 新堂洞、孔德洞、方背洞、厚岩洞、良才洞、水踰洞등에 50여개나 몰려있고 이중 3、4개업소는 50여대를 동원할수있다.

이들 불법업소들은 가정집、개인사무실、복덕방、세차장등을 연락처로쓰며 신문광고 명함돌리기등으로 유괴하거나 공공연히팜플릿을 뿌리고 있다.

업자들은 차량을기업체、학교、교회、사찰、사회단체에 소속된것처럼 등록、단속의 눈을 피하기도했다.

전세요금이 싸 전세버스의 경우 20인승기준 하루 12만원선인데 12인승 봉고코치는 6、7만원선이다.

봉고는 주말관광객、결혼식하객、장례조객을수송하는데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일부 중소기업이나 사회단체도 당초목적은 뒷전으로 돌리고 주말엔 아예 불법영업으로 톡톡히 재미를보는 실정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업용차종을 13인이상 버스나6인이하의자동차로규정하고있어 9~12인승인 봉고코치는 어떤 경우에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서울시경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자가용영업행위를 단속한 1백34건중봉고자가용영업행위가 40건이나돼 봉고차의 불법영업이 얼마나 성행하고있는가를 반증해주고있다.

자가용으로 등록된 봉고차는 최고 2백만원까지유한보상해주는 책임 보험만 든경우가 많아 사고발생때 사상자가 적정한 보상을받지못할 우려도 크다.

지난 4월7일 忠北丹陽八景관광지에 언더서 굴러 10여명의 중경상을낸 서울5나 2×××봉고코치는 운전사이자 차주 朴宗洙씨(35)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기때문에 피해자들이 적절한보상도 받지못하고 운전사만 구속됐었다.

한편 이같은 현실에 대해 大韓렌트카 鄭政夫상무(47)는『봉고차에 대한 수요가 영업용으로의 전환을 필요로하고 있다. 불법영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라도 봉고차의 영업허가와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묻고있다.

그러나 교통부 관계자는『메이커가 봉고의 제작승인허가서를 낼때 비사업용으로 냈고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3인이상 버스만 영업용으로 인정하기때문에 문제가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宋大洙기자】

腦炎모기發見… 注意報

보사부는 24일 부산과제주지방에서 첫뇌염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표하고 방역대책을 각시도에 긴급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달초부터 부산、전남、제주등 7개시도에서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실시한결과 지난 18일 뇌염을 전염시키는 쿨렉스모기(작은 빨간집모기)가 예년보다 약30일、작년보다는 20일 빨리 부산및 제주등지에서 채집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해에 일본뇌염환자가 14년만에 최고로 발생됐다고 지적、지난겨울의 이상난동및 최근에 계속된 이상고온 영향등으로 올해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3~15세의 어린이와 취약지주민、하절기 야외생활예정자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받는한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사부는 이미 지난4월중에 1백60만명에게 뇌염예방접종을 무료실시했으며 자비접종대상자 4백90만명은 오는6월말까지 전국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뇌염은 3~1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며 치명률이 높은 급성전염병인데 작년에는 모두1천1백97명의 진성뇌염환자가 발생, 이중 40명이숨졌다.

産災요양시설 擴充

87년까지 3백94억여원 投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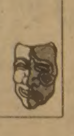
정부는 금년부터 오는 8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백94억여원의 예산을들여 釜山·大田·順天·溫陽·半月공단등 5개지역에 병상 9백여개의 산재환자요양및재활시설을건립、요양시설을 확충키로했다.

24일 노동부가 마련한「산재의료시설 확충5개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89억7천5백만원을 들여 順天에 병상2백개의 順天병원을, 68억6천6백만원으로 半月공단에 병상1백개의 신체장애자 공작소및 병원을각각 건설한다는 것이다.

쓸쓸한 달밤

美서 돌아와 밤舞臺서는 玄仁씨

한時代를 대표해온 大衆의 상징



허짧은 소리에 아래턱을 떨며 노래하는가수하면 40대이상은 금방「신라의 달밤」의 玄仁씨(64·사진)라고 짚을 것이다. 약간벗겨진 이마, 우뚝솟은 코,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의 상징이었다.

그가이제 70고개를 내다보는나이가되었다. 흉내조차내기어려웠던목소리도힘을잃었고그가부르는「신라의 달밤」을 듣는 청중중엔「쓸쓸한달밤」을느끼는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노래속에 살려는 당사자의 정열만은 그옛날 그대로다.

「팔자가 너무 세다」는 본인의 말처럼 그는 격동기를 몸으로 호흡한 가수였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것부터가 독특하다. 고등학교시절 군사훈련시간에 나팔을 잡은것이 인연이됐고, 대중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일본上野음악학교를나왔다.

징용을 피해 중국에 건너가 고국을 그리며「서울야곡」을 불렀다. 해방후엔 그유명한 상송「고엽」을 소개하는 한편 시인 朴寅煥씨의「세월이가면」을 불러 격동기에 메마른 정서를 적셔주었다. 1·4후퇴때는 북에남은 우리의 금순이를 굳세게했고 9·28수복때는「럭키서울」로 수복의 기쁨을 노래했다. 휴전후엔 전선을 누비며「육탄신용사」를 찬양했다.

뭐니뭐니해도 그를 스타로 만든것은 48년 시공관 에서 부른「신라의 달밤」이 었다. 혀꼬부라진듯한억양으로 구성지게 열창하는 그에게 젊은 여대생 팬이 쇄도 했다는 걸보면 우리 가요사에 큰 산맥을 그은 가수중의 한사람임이 분명하다.

서라벌을 환히 비치는 보름달처럼 빛나기만 하던 그의 인기도

젊은 세대가 등장함에따라 빛을 잃었고, 75년 그는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고생이 많다는 소문이 심심치않았다. 그러면서 누에가 뽕잎을 찾아 오듯 고국에 자주 나타 났다. 어느땐 꽃수염을 달고 나타나기도했다. 그러나 꽃수염도 신라의달밤에 광채를 넣어주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최근 또다시 귀국,후배가 차린「럭키 서울」이란 술집의 야간무대에설 준비를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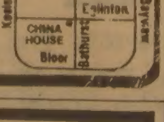
老醜바이어, 용기를….

【韓基泰 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THE KOREA TIMES Toronto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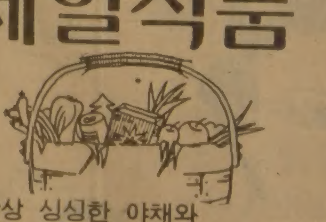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이민변호사
LARON PAUL HOPKINS
B.A., LL.B.,
BARRISTER & SOLICITOR
IMMIGRATION LAW
834 YONGE STREET
SUITE 200
TORONTO, ONTARIO
M4W 2H1
(416) 928-7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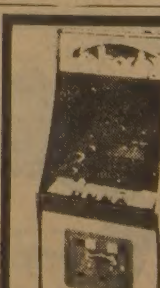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 247-7161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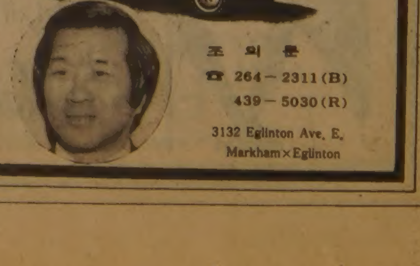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게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책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외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배구꿈나무 2m향해 무럭무럭

벌써 172cm

블로킹좋고 得點力높아

富平南국교6년 金敬植군

소년체전사상 남자국민학교 최장신 배구선수가 나타나 배구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富平남국민교 6년생 金敬植군(13)。172㎝、52㎏으로 동료선수들보다 목과 머리하나가 더 올라와있다。24일 金의 플레이를 지켜본 배구전문가들은『장신선수가 부족한 국내배구계로서는 지켜볼만한선수다。잘키우면 88년올림픽때 장신거포로 활용할 수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학교 4학년에 처음 배구를 시작했을때의 키가 159㎝。지난해 10월 교내체력검사때 6㎝가 늘어났으며 이후 쑥쑥 자라나 웬만한 중학선수를 내려다 보게됐다。

남자 선수들은 중·고교때 가장잘자란다。이런추세로 간다면 2m이상의 장신선수가 탄생하리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국내최장신인 李鍾敬(경기대)의 키가 1m99。

아버지도 키가크다。아버지 金好鍾씨(48·해창철근후)는 180㎝가 넘으며 어머니는 160㎝。현재 군에 복무중인 형完植씨도 190㎝가 넘는 장신이다。

富平남국교 왼쪽주공으로 활약하고있는金군은 팀전체 득점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혼자 따내고있다。40㎝이상의 좋은점프력을가졌으며 블로킹기술도 뛰어나다。큰키가 블로킹에서 큰몫을 차지하지만 상대공격수들의 이동이나 순간적인 동작을 따라잡는 블로킹감각이 좋다。

키큰선수들은 보통 동작이 둔하고 체형이 이상해보이지만 金군은 쭉곧고 균형잡힌체격을 갖고있다。

팀이 핀치에 몰릴때마다 주장답게 웃으며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등의젓한 모습도 보여준다。

『국가대표선수가 되는게 꿈』이라는 金군은 4남1녀중 3번째。【全州=소년체전취재반】

◇잘자라다오 2m가 멀지 않았다。소년체전 최장신 배구선수인 金敬植(1m72㎝52㎏)은 큰 키때문에 국내배구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소년체전취재반】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역시 崔淳鎬"

2게임 연속골 浦鐵、國民銀에 5連敗선사

축구슈퍼리그 한달동안 休息

浦鐵에 가공할 崔淳鎬(광운대)는홈그라운드이틀째 國民銀行과의경기서 후반30분 결승골을뽑아 2게임연속득점을 기록했다。浦鐵은 崔淳鎬의수훈골로 1―0으로 신승、1승4무승부(승점6)로 油公과함께 2위로 부상했다。

또 大宇는 슈퍼리그 5차전에서 油公과 득점없이 비겨 2승3무승부(승점7)로 전기 중반에서 선두를 달리고있다。

이날 경기를갖지않은 할렐루야는 1승3무승부(승점5)로 4위에처졌고 國民銀行은 5連敗의 부진속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반기 20게임중 23일현재 12게임을 소화한 슈퍼[illegible] 되는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때문에 한달간휴식한후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전반기게임을 모두마친다。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등 3대도시에서 6일간펼쳐진 경기에는 약18만명의 관중이 입장、입장수입은 1억3천여만원에달한다。

◎제6일전적(23일·대구시민운)

유공 0―0 대우

포항제철 1―0 국민은행

▲득점=崔淳鎬(75분·포철)

星武에 역전패당한 韓電

홈런6發…浦鐵에 분풀이

실업야구 이틀째

韓電 장거리타선에 불이 붙었다。첫날 星武에역전、분패를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韓電의 장거리포는 제1회실업야구선수권대회 浦鐵과의 2번째경기서 일제히 포문을 열기시작、홈런6발을 포함한 21안타를 퍼붓고 15[illegible]

실업춘계리그 우승팀이 기도한 浦鐵은 朴魯·金泰鎬·李佑同·李東秀등 4명의 투수들을 마운드에 올렸으나 韓電의 홈런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韓電의 4번姜琪文은 6회(2점)와 8회에 연타석홈런을 날렸으며 6번지명타자 楊宗秀도 홈런2발을 터뜨렸다。[illegible]선리그서 1승1패、浦鐵은 1패를 기록했다。

◎제3일전적(24일·서울운)

한 전 (1승1패)	060	113	130	—	15
포 철 (1패)	000	010	300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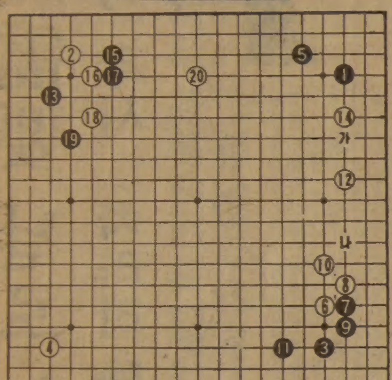
▲홈런=楊宗秀(2회2점、5회) 許承汶(2회2점) 姜琪文(6회2점·8회) 風珍彦(7회·이상 한전)

張正九방어전 연기

6월11일 열어

오는4일 大邱서 열릴예정이던 프로복싱 WBC라이트 플라이급챔피언 張正九의 첫방어전이 일주일연기、6월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張의 1차방어전 상대는 동급10위인일본의 이나미·마사하루(伊波政春)。

第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17局 第1譜 1~20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 〈2勝2敗〉

黑(6段) 張 秀 英 〈4勝0敗〉

姜5단(지난4월 승단)은 覇王戰에서 재작년과작년 거듭두번이나 도전했다。그리고 비록 방적스코어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曺帝國」타도 연합군의 선봉대장구실을 한것은 사실。나름대로 사기가 한껏 올라『앞으로 몇번이고 도전하겠다』는 결의가 대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뜻과달리 냉혹하여 좀체 기회를 다시 주지않고 올해의 名人戰에서는 이미 2패를 기록、도전권보다 시드組에남을수 있느냐가 당면문제로 되어있다。따라서 이바둑은 중요한고비인데 상대는 승승장구하는 張6단이 계속 전승을목표로 최선을 다할것이니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격전의 양상

白12까지 흔한 포석인데도 지부진、28분이나 소비했다。黑13이 말하자면 하나의 갈림길。이로「가」에 전개겸 육박하여 장차 黑「나」의 침입을 보면 白은 우선 좌상귀를 13자리에 굳히게될뿐、張6단은 그것을 꺼린모양이다。黑13이면 白14는 당연。黑15이하 白18때 黑19의日字가『근래 유행하는 정석』이라고趙南哲8단은 말한다。그리고 종전에 유행했던 정석의 보기를 참고도로 제시했는데 그것은 다음보로 미루고 白20에 대한 해설부터 들어본다。

『20은 거의절대。이로부터 한판의운명이 좌우되는 전투에 돌입한다』【一凡】

白仁鐵、판정苦杯

첫 원정서 27연속의 期待깨져

美 신·매니언에

【아틀랜틱시티=本社국제전화】白仁鐵의 KO주먹은 집안에서만 통한 허상(虛像)이었다。프로복싱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미들급 챔피언이자 WBA동급2위인 白仁鐵(23)은 20일상오(한국시간)이곳 샌즈호텔특설링에서 벌어진 실력테스트경기에서 미국의 흑인왼손잡이복서 신·매니언(26)에게 10회 심판전원일치판정패했다。이로써국내무대서 26KO승을 기록했던 白은 첫해외원정서패전、KO행진에 종지부를찍었다。

白은 이경기서 패함으로써 세계도전기회를 상실했다。白仁鐵의 매니저 金浩然씨에의하면 白은 초반5라운드까지 우세를 보였으나 이후열세에빠졌으며 7라운드에서 카운터펀치를맞고 위기에 몰렸다。

白은 8라운드에 한차례 파울감점을 당했으며 주심으로부터 여러차례 주의를받았다。이경기서 녹다운은 없었다。

WBC헤비級 홈즈 WBA 마이클독스

20日 타이틀防禦戰

【라스베이가스 19日AP聯合】WBC헤비급 챔피언 래리·홈즈와 동급 WBA챔피언 마이클·독스가 20일(현지시간)듄스호텔특설링에서 각각 타이틀 방어전을 벌인다。

타이틀 매치를 하루앞두고 실시된 계체량에서 래리·홈즈는 96.6㎏을、도전자 팀·위더스푼은 99.5㎏을 기록했다。

우물안 「26KO行進」

無名에 敗한 白仁鐵

조명탑

26연속 KO주먹이 무너졌다。세계랭킹에도없는 무명선수에게 패하다니 한마디로 씁쓸하고 어처구니없다。

이것이 한국프로복싱 內強外弱의 현주소다。주니어미들급 세계정상을 겨냥했던 白仁鐵은 美國시장에서 상품가치를 인정받기위해 나섰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은셈이다。약한 상대들을골라 국내에서 쌓아올린 연속KO기록과 WBC랭킹2위의 위치가 얼마나 허무맹랑했던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복서가 처음 美國무대를 밟은것은 1932년4월 라이트급 徐廷權씨가 2년간 美國의링을 주름잡으면서 세계6위에 올랐었다。67년에는 주니어라이트급 徐強一이 LA에서 명성을날렸다。

한국의 매서운주먹은 68년 WBA밴텀급 1위 李元錫이 美國링에서 무릎을 꿇은뒤 급전직하、李昌吉·洪秀煥·金泰式·李承勳·崔忠日·金得九·黃俊錫·金相賢등 국내의 간판급 선수들이잇따라 허물어졌다。세상을 떠난 金得九선수외에는 투지조차 보여주지못했다。

화려한색칠 성급하게 돈벌이 노려

경험의존 버리고 先進기술 연구를

白仁鐵의 패전은 연속KO승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기스타의 비극이라는점에서 세계도전실패보다 더욱 충격적이다。그러나 이번 패배의 책임을 白仁鐵개인에게만 돌릴수 없다는것이 권투계의 의견이다。白의 훈련을 맡았던 트레이너、선수를관리해온 매니저가 분수를 지켜 처신했다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한마디로 성급한 출세、과욕이 빚은결과다。기량향상 대신 껍데기만 화려하게 색칠、돈을 벌려고하는것이 우리권투계의현실이다。

WBA·WBC의 랭킹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흥행업자들의 외교수완으로 선수를 상위랭킹에 올리는자체를 비난할수는 없다。그러나 비즈니스에 앞서 선수의 기초를 튼튼히 다듬어놓고 나름대로 냉정한평가를거친뒤외교적인 노력이따라야할것이다。이순서가바뀌어져있다。

지금 세계 복싱수준은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국내 복싱지도자 대부분이 선진기술연구에소홀、지난날 경험에 의존하여 선수를 가르치고있다。이같은 풍토에서는 강력한 세계챔피언이 탄생할수 없으며 설사 운좋게 타이틀을 따낸다하더라도 롱런은 어렵다。요행으로 세계챔피언이 된뒤 강자들을 기피하고 약자만골라 방어전을갖고 챔피언기간중 최대한 돈이나벌자는 생각을 버릴때가왔다。이런 악순환속에서 세계타이틀은 빛을 잃었고팬들은복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있다。【金仁奎기자】

張吉山 <1747>

黃晳暎 作 / 崔然石 畫

第四部 逆謀 / 第一章 彌勒 (207)

『유점사의 일여스님과 묘정스님이 번군관(番軍官)승이 되어 남한산성의 개원사(開元寺)에 들어가 계시답니다。이번에 상번된 스님들은 거의가 관동 관서 관북의 각사에서 왔다는데 그 수는 좌우중 삼초라 하니 사백 명 가까이 된답니다。승병은 도총섭(都摠攝)의명을 중히 여겨 수어청의 관할을 받지 않으므로 산성의점령은 죽비 한번 때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랍니다。이번의 도총섭은 혜일(惠日)스님이니 풍열 스님의 아우뻘이 된다고 들었읍니다』

『풍열 스님은 천불산에서 내려오셨다구 합디까?』

여환도 주위에서 듣지못하게 물으니 전성달이 말하였다。

『풍열 스님과 옥여 스님은 가평(加平) 현등사(懸燈寺)에 계시답니다。대성법주 스님은 전과같이 수태사에서 사자 노릇을 하구 계시지요。강원 승병은 법주 스님이 이끌 것입니다』

『되었소、이제 통문을 보냅시다。전상좌가 금화쪽에 직접 전하고 해서에는…』

『예、안협 사는 이상좌가 한달에 한번씩 평산 나가서 풍류계의 계원집에 들른답니다』

『그럴 틈이 없으니어서 전하도록 이르시오』

또한 최영길에게 슬그머니 통문을 내어주며、

『파주 이도장께 이것을 전해주고 송도에서는 이날짜에 맞추어 강화의 달곶진(鎭)을 도모하도록 이르게。그리고 송도쪽에 알려서 환도 스무 자루를 보내 주도록 당부하게』

이렇게 동북과 서북방면의 통문발송을 처리하고서 그들은 저녁 먹고 집이 먼 사람들만 빼고는 양주인근 사람들은 돌아갔다。

이튿날로 전성달은 통문을 가지고 삭녕 홍섭산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쉬고는 금화 천불산과 안협의 상수리로 전하였다。안협의 이정명은 다시 통문을받아 평산으로 전하였고 평산에서는 자비령 길산과 소메의 오계손에게로 전하였으니 사흘에서나흘이걸렸다。

최영길은 칠성암에서 돈 삼백냥을 받아 파주로 향하였다。문산포 여각에 이르러 이경순을 만나 저간의 진행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돈을 내밀었다。

『스님께서는 송도에서 준비가 다될것이지만 이것은 성심이라면서 향도들에게서 시주받은 돈을 보냈읍니다。말 한필과 환도 스무자루、전복 그리고… 여기 다 적혀 있답니다』

영길이 통문과 물품 내역을 적은 종이쪽을 이경순에게 내밀었다。

『음、말 한 필、환도 스무 자루、전복 열벌、전립…도대체 환도는 병장기니까 필요하겠지만 전복 전립은 무엇이며 또 한 말은 무슨 소용이 있어 구하던가?』

『예、잘모르겠으나、먼저 입경하는이들이 밤에 성문 문루를 점령할제 필요하답니다。그리고 훈련원에서 모여 거병할적에는 군복 입고 군마에 탄 용녀부인을 앞세워야 한답니다』

이경순은 그제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그는 전생이를 불러 송도 사대전 임방 좌장 박대근에게 이것들을 전하라고일렀다。

땅끝에서 오다 <63>

金成一 作 / 宋龍 畫

광야(曠野)의 소리 ③

준호는 다시 이 세원의 바이블을 생각하고 있었다。그가 읽었던 작은 내용만 가지고도 그는 몇가지의 특이한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그 책에 보면 신이 사랑했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땅에서 떠날것을 요구받았다。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온 풍요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광야를 방랑하였고、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그 아비의 땅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를 지났으며 20년간의 종살이를 하였던 것이다。그의 아들 요셉도 고향을 떠나 이집트에 팔려가서 2년동안 감옥살이를 하였고、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 모세도 그가 자라난 파라오의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불의 연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인간이 걷는 환난의 길은 그것이 신의 인도를 받을 때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는것인지도 몰랐다。

『차라리 그렇기라도 하다면…』

유치장에 갇혀 있는 가엾은 새、문영실이나 실종된 이 세원이나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그리고 198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이하게 피곤하고 긴 날들을 겪어가고 있는 준호 자신까지 포함하여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낭만적인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준호는 문득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세게흔들며 시계를 보았다。1월5일 아침 아홉시。그 날、전세계가 쉬고 있는 가운데 고꾸데쓰의 하마마쓰조역에 내린 이후로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다。참으로 긴 이틀이었다。점장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말대로 롤가 일어나는 1982년이었다。오늘은 또 얼마나 긴 하루가 될 것인가。

아침 아홉시의 유리창을 바라보며 그는 김관식(金冠植)의 시、「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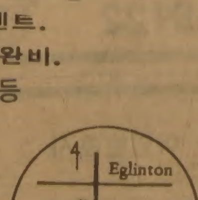
오전아홉시였다。
찬란한 나팔소리와도 같은 아침 햇살이 부서져내리면
시인은 일어나 일터로 간다。
나는 한그루 포도의 나무。
하늘에 계신 아버진 농부라고 말씀하시니
나자렛 사람 이에수·크라이스트가
야윈 두손을 머리에 들어얹고 축복하는 까닭에 나의 아가는 웃음을 배우는가。
개깃 사운 사운 바야흐로 나는 요하의 비둘이때
들……
시인은 일어나 일터로 간다。
그리고 주께서는 은돈을 주시리라。
오전 아홉시였다。

그렇다。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준호는 생각난듯 벌떡 일어나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서 수화기를 들고 회사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한국일보

與野 오늘 연쇄會談

국회召集등 문제 政治的절충

두總長접촉후 3黨 總務만나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24일 상오 3黨의 원내총무회담과 아울러 民正-民韓黨만의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최근 문제에 대한 일련의 해결방안과 6월 임시국회 소집문제등을 절충한다.

한편 民正黨과 民韓黨은 24일 각기 中執委와 당무회의를 열어 이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民正黨의 李鍾賛 총무는 23일하오 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 총무와 연쇄접촉을 갖고 최근의 일을 정당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民正黨은 이날 民韓黨이 확대간부회의에서 黨3役이 金相浹국무총리와 在野측과 접촉하도록 결정하자 黨政협조를통해 일단 정당차원에서 이문제를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워 李民正총무가 이날하오『정당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民韓黨을 설득했다.

이에따라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과 柳漢烈民韓黨사무총장은 24일상오 별도의 회담을 가지며 3당총무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번문제와 임시국회소집문제를 절충키로했다.

李民正총무는 23일하오『최근의일을해결하기위해 정치력을 발휘해 政局을안정시키는 방향에서 타결점을 찾아내겠다』고말했다.

한편 民韓黨의 한고위소식통은『최근의 문제에 대해 民正黨측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면 6월중순께 국회가 열릴수있을것으로 본다』고밝혔다.

한편 金相浹국무총리는 23일하오 이 최근정세와관련, 民韓黨측의 총리면담 요청에대해『기본적으로 만날 용의는 있지만 우선 정당과 정당간의 차원에서 협의해보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民正黨과 협의를 한뒤 얘기를 해달라』는 입장을 趙英吉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했다.

趙英吉 총리비서실장은『이번事案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있으므로 前例를 좇아 정치적차원에서 정당간의 협의가 先行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방위청 밝혀

駐韓美육군·日자위대 史上첫 合同훈련검토

【東京=宋孝彬특파원】日本방위청은 앞으로 駐韓美공군뿐아니라 육군과도 전투력향상을 위한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할방침을 세우고있다고 日本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날 일본자위대가 오는85년 美F16전투기의 일본 미사와(三澤)기지배치에 대비한 駐韓美공군과의 공중훈련실시계획과함께 육지상에서도 駐韓美軍과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보도하고 그러나 日자위대와 駐韓美육군과의 훈련은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韓半島에서 일선미군부대를 후방으로 빼돌리는 결과가돼 한국에 불안을 안겨줄 가능성도있다고 덧붙였다.

임시國會 소집不變 陳民正대표 밝혀

陳懿鍾 民正黨대표위원은 23일 제1백17회임시국회 소집문제와관련,『정기국회에 앞서 6월중 한차례의 임시국회를 소집,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黨의 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오는 10월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로 정기국회會期가 한달가량 단축되고 6월중에 국회가 소집되지않으면 정기국회 이전에는 국회를열 기회가 없다』면서『6월중 국회를 열어 案件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民韓 확대간부회의

民韓黨은 23일 상오 柳致松총재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情勢를 논의, 우선 黨3役이 金相浹국무총리및 在野측과 접촉을통해 해결책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柳총재는 이날회의에서 柳漢烈사무총장·林鍾基총무·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등 3役에게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총무는 6월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民韓黨은 24일열리는 정례당무회의에서는 6월임시국회 문제등을 논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난뒤 金文元대변인은『柳총재는 黨3役이 양측과의접촉을 통해 최근 사태에대한 일련의문제들을 거론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柳총장은 이날낮 趙英吉국무총리비서실장을 통해 金총리의 면담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林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와 관련,『아직 본격적인 3黨총무의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學校주변 暴力강력團束

사회정화委 상습범은 拘束수사원칙

사회정화위원회는 학교주변의 폭력배 근절대책을 마련, 23일부터 통학로, 도서실, 버스정류장, 전자오락실, 당구장, 만화가게, 극장가주변에서 중점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계속되는 단속에서 폭력 청소년에대해서는 피해내용이 적더라도 犯行횟수가 여러차례거나 수법이 악랄하고 불량서클 가입자일때, 폭력유발요인이 유흥업소 업주때문일경우 업주에대해 구속수사를 벌이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구역책임제 단속▲남녀학교의 登·下校時 중점단속▲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신고된 사람 검거▲불량배등이 많이 모이는 업소에 대한 협박및 행패 단속▲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고고클럽등 유흥업소 범행단속 등이 포함되어있다.

정화위원회는 또 단속은 경찰관과 교사, 유흥업소 감독행정기관, 지역정화추진위원, 청소년선도단체관계자등 2~5명으로 구성된 교외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실시하고 비행학생에대해 학교장이 직접면담지도하는등 校內지도도 강화하기로했다.

이같은 대책은 이날상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내무, 문교, 치안본부, 서울시, 서울시경, 서울시교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관계관회의에서 시달됐다.

농촌에「工業開發지역」指定

10만명에 1곳씩 5~6개 中小型공장 誘致

1次로 올해 各道 1개소씩

농촌에 공업개발장려 지역이새로생긴다. 정부는인구 10만이하의 전국농촌지역에1만명내외의 소규모 農工地區(공업개발촉진지구)를대량으로 지정하고 1개지구에 5~6개씩의 중소기업형 공장을유치, 기틀거점으로 농촌공업을 계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방침아래 1차적으로 올해에는 道단위로 1개소씩 모두 10개의農工地區를 지정키로했다.

농공지구입주업체들에대해서는 법인세·재산세등 각종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고 인·허가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해주기로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농공지구 입주공장들에 대해서는 이밖에도▲도로·전기·용수등 공장입지여건의조성과▲기술·경영지도▲직업훈련▲환경보호및 공해방지시설지원등 혜택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이들 10개농공지구의 성과를 보아가면서연차적으로 농공지구 지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농촌공업을 육성키로한것은 농촌지역에 공업과함께 유통·관광등 서비스업을 유치, 농업에만 의존하고있는 농가의 소득구조를 개선해서 생활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농촌경제를 균형 발전시키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촌공업육성을 뒷받침 하기위한 기본법으로「農家所得源개발촉진법」案을 마련 23일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법안에 의하면 정부가 중앙농가소득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 산하에 道·市·郡단위로 각급 농가소득개발을위한 기본지침과 道단위 기본계획, 郡단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離任 美롱提督에 全대통령이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離任하는 로버트·롱 美태평양지역사령관에게 保國훈장 統一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金潤鎬합참의장과 워커駐韓美대사·세네월드韓美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救世軍 萬國본영 司令官접견·勳章

全斗煥대통령은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국救世軍창설75주년기념 축하예배에 참석하기위해 來韓한救世軍萬國本營의 잘·왈스트롬사령관(핀란드人)을접견, 국민훈장 無窮花章을 주었다.

課長級공무원 特殊훈련

精神교육 탈피, 感受性·克己力 중점

1次로 60명대상

총무처는 지금까지의 공무원정신교육방법과 전혀 달리 신임課長級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악훈련과 感受性훈련등 특수훈련을 내용으로하는「核心관리자과정」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신설했다.

각 部處에서 선발한 6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오는6월3일까지 2주일간실시될 제1차훈련의 주요내용은 자기 省察과 적극적인 사고력개발을위한 感受性훈련, 좌선, 暗示훈련, 克己力과 실천력을 배양키위한 20㎞ 晝間산악훈련, 30㎞야간산악훈련, 태권도훈련등으로 돼있다.

이과정에는 또 관리자로서의 의사결정및 전달훈련과 보고서 작성훈련, 발표력향상훈련, 통솔력강화훈련등 지도력배양훈련이 포함돼있다.

教材와 강의가없는 행동훈련인 이훈련은 훈련기간중 휴일없이 합숙하게되며 실천교육에 중점이 두어진다.

社告

나이지리아 民俗舞踊團 초청

6월3일 하오7시30분 世宗문화회관 대강당

한국일보社는 아프리카대륙 土俗文化의精彩를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 國立民俗舞踊團 초청 공연을 6월3일 (금) 하오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주최로 마련하는 이 나이지리아 국립민속무용단 초청공연은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본격 아프리카 고유 예술무대로 인간 저 먼바다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대륙특유의 정열적인 민속 춤을 유감없이 맛볼 수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와의 문화교류사에서 첫章으로기록될 이무대는 마음을 흔드는 강렬한 토속춤과 현재 나이지리아카와라주에서 유행하고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민속춤「람보」를 아울러 보여주게됩니다. 이 나이지리아 국립민속무용단은 서울공연에 이어 釜山(6월7일 하오 7시·釜山시민회관)과 光州(6월5일하오5시·光州시민회관)등지에서 지방공연을 합니다.

釜山 6월7일 市民회관

光州 6월5일 市民회관

大陸정열 넘치는 아프리카土俗예술무대

◆회원권 <서울>
S석=5,000원
A석=3,000원
B석=2,000원

◆예매처
▲본사사업부 ☎472▲세고비아기타 ☎6161▲충무로이태백인형 ☎2000▲교보문고 ☎6151▲광생약국 (이대입구) ☎7372▲세종문화회관 ☎27 ▲종로서적 ☎2331▲삼익피아노 ☎1117

공동주최 한국일보社·한국放送公社

民權총재 林采洪의원 選出

民權黨은 23일 하오 서울 YMCA강당에서 全黨대회를 열고 林采洪부총재(국회의원)를 만장일치로 새 총재로선출 했다.

또 부총재에는 崔寅泳前사무총장, 郭泰珍 상임고문을 선출하고 나머지 3人의 부총재는 在野迎入케이스로 남겼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재출마를 선언했던 曺基沆 총재代行이 대회직전 출마를 포기했다. ☆얼굴2面

各黨입장을 整理 축조審議 갖기로

國會제도小委

국회운영제도研究小委(위원장尹碩淳의원)는 23일상오 모임을갖고 현행국회법에대한 각당의 입장을 條文별로정리, 축조심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韓日 文化교류基金 회장 具滋暻씨內定

韓·日議員聯盟 사단법인으로 곧 발족될 韓·日文化交流기금의회장에 具滋暻럭키그룹회장, 이사장에 李漢基前감사원장을 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역사의 공동연구학자및 청소년 스포츠교류를위해 지난81년 서울총회에서 韓·日양측이 각각 10억원과 10억엔의 규모로 설치키로한 이 기금은 6월초에 정식발족될것 이라고 李相翊韓·日의원연맹 간사장이 23일 밝혔다.

中共機 피납사건 自由中國에 설명 李외무

李範錫외무장관은 23일하오 薛毓麒 駐韓자유중국대사를 외무부로초치, 中共여객기被拉사건과관련한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對자유중국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30여분간 계속된 이날 요담에서 李장관은 여객기被拉사건 납치범 처리문제에 관해 국제협약과 국제관례및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자유중국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이번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해주는것이 양국우호관계에 바람직하다는점을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李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6·23선언에 따라 73년부터 理念과 體制를 초월,互惠平等원칙에 입각한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왔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우리의 정책이 자유중국과의 우호관계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薛대사는 李장관의 설명에 대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본국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시인 장·콕토의 감각은 특히 뛰어났던 것같다.『빈에서는 우리들이 호흡하는 공기까지도 음악적』이라고 그는 말하고있다. 아닌게 아니라 철학자 니체도 음악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다『음악이 없다면 인생이란 하나의 착오일 것』이라고 그는 단정한다.

▼당연한 얘기같지만 베토벤은 음악을 가리켜『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라고 말하고있다. 시인 롱펠로에 의하면『음악은 인류공통의 언어』이기도 하다. 소설가 이효석이『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울리는 다방』을 어두운 日帝치하 젊은 지식인의 보금자리로 그렸던 이유를 알만하다.「인류공통의 언어」속에 구원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개화기 이래 음악이 울리는 다방은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의 사교장이자 정신적인 피난처였다. 6·25전 서울에는『서대문의 신세계』, 충무로입구의 紫煙莊, 명동의 돌체같은 음악다방들이 장안의 멋장이들을 끌어 모았다. 하르빈교향악단출신 첼리스트 金仁洙씨가 주인이었던 신세계에서는 가끔 피아노3중주 연주회도 열어 격등했던해방후 이땅의 정신적 안식처구실도 했다.

▼6·25는 이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뿐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안식처도 산산조각을냈었다. 이때 그래도 정신적인 황무지를 돕고「예술의 향기」로 전쟁의 상처를달래보려던 몇몇 레코드수집가들이 있었다. 유명한 음악감상실「르네상스」가문을 연것도 피난시절 대구에서였다. 목숨처럼 아끼던 레코드 8천장을 주인 朴容黃씨가 대구까지 끌고 갔었다한다.

▼음악감상실의 단골 인기곡이라면 으레 베토벤의「운명」이나, 피아노협주곡5번, 그리고 드보르작의「신세계」다. 그옛날 SP시대에서 LP시대인 이제에이르기까지「르네상스」는 LP판 3천장을 수집했다한다. 시설도 동양최고급. 그러나 76년께부터 차츰 손님이 줄기 시작해서 이제는 문을 닫게 됐다(한국일보 22일자보도). 팝에 밀리고, 텔리비전에 쫓긴 셈이다.『철학보다 높은 계시』의 산실이 살아남을 길이 없을까 안타깝다.

社會漫評

子息도 안보이고 男便도 안보이고…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종합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제2회 어린이 야구 대회

□ 때 : 1983년 7월2일(토) 낮12시
1983년 7월3일(일) 아침9시
□ 곳 : CENTENNIL PARK 야구장
□ 종목 : ①어린이부~1971년1월1일이후 출생자
②소 년 부~1969년1월1일이후 출생자
□ 참가비 : 팀당 $50 출전선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회당일 가지고 올 것.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금) 오후7시(한국일보 본사)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박재선(755-6434)
※공은 소프트볼 사용(11인치)
※투구는 언더드로우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

레바논 報復테러 再燃

左·右派간 1백여명 납치

【베이루트AFP=聯】레바논은 지난 21일이후 이나라 2大반목세력인 드루즈회교게릴라와 우익기독교민병대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복납치로 모두 1백여명이 실종됐으며 이중 23명은 살해된채 발견됐다고 레바논의 소식통들이 22일 전했다.

이때문에 양세력이 최소한 1백32명의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를 끝으로 지난 8일 간신히 마련한 휴전은 성립2주여만에 또다시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해온 양세력간의 충돌은 21일 드루즈세력지도자 1명이 지뢰폭발로 사망함으로써 촉발됐다.

소식통들은 살해된채 발견된 23명중 14명은 드루즈회교도이며 나머지 9명은 기독교도인 것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나치亡靈에 反旗든 다윗의별　前나치친위대원들의 재결합에 항의하는 약 5천명의 시위대가 21일 西獨바트 헤르스펠트市 중심가를지나고있다. 유태교를 상징하는 「다윗의별」旗【이스라엘국기】와—西獨內유태인 학생들—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든 이들중 일부는 이날 新나치주의자들및 경찰과충돌, 5명이 입원하고 7명이연행됐다. 【바트헤 르스펠트 (西獨) 21日AP=聯合】

中共공군 年少化개편완료

홍콩紙 연대장級이상 고위장교

【홍콩=聯】중공공군은최근 연대급이상의고위장교들에대한 연소화및 개편을완료했다고 22일 홍콩의 新晩報가 北京發로 보도했다.

중공인민해방군의 공군사령관 張廷發은 현재 北京에서 개최되고있는 「공군당위원회 상무위확대회의」에서 신진소장지휘관들은 보다 과학화、전문화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군지휘관들에대한 연소화를 단행했음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蘇간부회의장에 우스티노프被選說

【모스크바NAAS=聯】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74)가 다음달 16일 열릴 최고회의간부회의에서 前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사후 공석이된 최고회의간부회의장에 선출될것이라는 추측이 모스크바에 나돌고있다. 우스티노프국방상이 국가원수인연방최고회의간부회의장에 임명될것이라는 추측은 그가 브레즈네프사후 안드로포프(69)의 집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을뿐만아니라 건강이 좋지않은것으로 알려진 안드로포프가 공산당서기장직외에 국가원수직을 겸하지않을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것이다.

內外動靜

▲蔡汶植국회의장은 23일 禹炳奎사무총장을 비롯한 國會사무처직원 3백50명과 함께 京畿도楊州군 州內면南放리에서 농촌모내기일손돕기운동을벌였다。

▲崔順達체신부장관은 약2주간에걸쳐 美國과 멕시코등지의최신통신기술개발현황을둘러보고국산전자부품의 수출증대등을 협의한뒤 24일상오 귀국한다。

左翼게릴라大虐殺劇

페루서 농민 1백여명피해

【리마AP=聯】毛澤東주의를 신봉하는 일단의 페루좌익게릴라들이 지난18일 리마남동쪽에 위치한 아야쿠초지방의 산 호세 섹세와 우추라카이 근처마남등 두개 도시에서 대학살극을 벌여 1백여명의 농부들을 살해했다고 이곳의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좌익게릴라들의 대학살극은 3년전 毛澤東주의를 표방하며 게릴라집단을 조직한후 저지른 최악의 유혈사건이다.

이들 게릴라들은 이날 해질무렵 2개의 고압선철탑을 폭파시켜 아야쿠초시를 암흑으로 만든뒤 대학살극을 개시했다.

中共、金正日인정

人民日報 논문 대대적 소개

【東京=聯】중공의 인민일보는 북괴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의 논문을 대대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중공이 이미 金正日의 후계체제인정을끝냈음을시사해주고있다고 일본신문들이22일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金正日이 북괴노동당이론지 「근로자」83년 제5월호에 발표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깃발을 높이들고 전진하자는 제목의 논문을 平壤발 新華社통신으로 상세하게 소개했다고밝히고『중공신문이 金正日의 논문을 소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30臺車輛 연쇄충돌

伊高速道路 터널서

【사보나(이탈리아)AP=聯】이탈리아의 제노바남쪽29㎞지점의 고속도로 터널속에서 21일 최소한 30대의 차량이 연쇄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8명이 죽고 22명이 부상했다.

韓·日무역實務회의

貿易逆調 시정협의

【東京=宋孝彬특파원】제16회 한일무역실무자회의가 23일상오10시 일본외무성6층회의실에서 열렸다. 80년1월이후 3년4개월만에 열린 이번한일무역실무자회의는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협력과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얼굴

林采洪 民權총재

성격 원만한 原則主義者

民權黨공천으로 院內에 진출한지 2년반만에 제5黨의 「黨首」가 된 정치初年生。

성격이 원만하고 성실한 것으로 定評이 나 있으며 원칙론자로 동료의원들간에는 알려지고 있다。

高大를 졸업한뒤 통일원에 근무하면서 정치에 뜻을 두어 10代때 출마、落選의 고배를 마셨다가 再起해 11代때 국회에 첫발을 디뎠다。

통일원재직시절에는 北韓의 實相을 폭로한 「斷絶의 시대」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한 學究派이기도 하다。

金義淳총재가 별세로한후 金正라총재대행과 黃明秀·金正秀의원등의 脫黨으로 難破직전의 어수선한 民權黨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인 金銀中여사(46)와의 사이에 2男1女를두고 있다。

메아리

留學百年

鄭達泳【編輯委員】

지금으로 부터 꼭 백년전인 1883년에、첫 遣美사절을 따라 미국에 발을디딘 25세의 청년 兪吉濬은、매서추세츠州 대머·아카데미라는 고교에 籍을 두었던것으로 전해진다。그는또 보스턴대학에서도 공부를 계속했음이 확인되었다고 후손들은 말한다。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미국유학생이었다。한국인의 미국유학史도 그러고보면 올해로 1세기를 넘어가고 있는셈이다。

兪吉濬은 그의 저서「西遊見聞」에서 그가 한때 머물렀던「寶樹敦」에 대해 이렇게 쓰고있다。

「…合衆國의 敎育하는 規模가 甚盛하니、然하나 此府人民이 學問을務修하야 碩儒巨擘의 龍門함이 其蹟을 相接하는 故로 合衆國人이 此府로 其國의 文物主人이라 稱하나니 此府의 小民이라도 其言行과 詩常에 [illegible]」

장황하지만 요약을 한다면 「보스턴은 학문의 도시」란 뜻이다。그 말은 백년뒤인 오늘에도 옳다。

兪吉濬의 유학생활은 겨우 1년반에서 그쳤다。그는 개화된 선진문명에 매료되기는 하였으나、그속에 속절없이 빠졌던것 같지는 않다。오히려 주체적인 發展史觀으로 그를 이해하려 하였다。그는 구미의 대학제도를 설명하면서 「…大學校의 生徒는 卒業한 後에 學成한 者가 其 成就한 才操로 人間의 實事를 從하야 …生民의 利用과 厚生하는 道를 擴充함이라」고 했다。그에 의하면 實事求是 利用厚生이 대학교육의 불변하는 본질이다。

MIT(매서추세츠工大)는 그같은 대학觀에 꼭 들어맞는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어쩌면 꼭 백년전에、청년 兪吉濬도 이곳을 지났었는지 모른다。

MIT학생회관의 컴퓨터실은 1년 내내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이 컴퓨터실 안쪽에 한국유학생들의 「아지트」가 있다。어느 때 찾아가도 한국유학생들 4~5명은 쉽게 만난다。그중에는 아예 이곳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면서 기숙사에는 옷이나 갈아입으러 가는 극성파도 있다。

『후진국에서 온 유학생이란 결국 선진문화에 의해 洗腦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자칫 착각을 하다가는 자신의 正體마저 잃는다。우리는 미국인이 되어 돌아갈 수 없다』

『서울에서는 부모님 속도 썩이고 친구도 괴롭히고 했지만 여기서는 공부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학생도 프로로서 낙오됨에 철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신입생 환영회에 갔다가 「왜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가는가、곰곰 생각할 때 회의가 없지도 않다。미국유학이 만능은 아니다』

유학생들로 부터 듣는 「유학1세기의 오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어떤 사회과학도는 「유학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의 대망론을 편다。

대학정보에 어둡던 50년대의 한 유학지망생은、어느 지역의 대학을 가야할는지 알수가 없었던 나머지、미국지도를 펴놓고 국토의 「중앙」을 짚었다는 일화를 남겼다。얼마 전까지만 해도、막바로 미국의 일류대학으로 몰리기보다는、시골의 한적한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교외 스탠퍼드대학에서 만난 柳承宙군(20·전자공학과3년)처럼、서울의 대학에서 2년을마치고 이곳의 3학년으로 전학이 가능했던 예외적인 경우도 목격하게된다。너도나도 유학생비자를 받아드는 80년대는、누가 뭐라든 가고보는 「유학의 황금시대」다。

일찌기 히피문화의 발흥지였던 텔리그라프街를 따라、버클리대학의 정문으로 들어서는 어귀에서、「헨리·신에게 한표를!」이란 한 무리의 피키트를 조우한다。캘리포니아주립대학 학생평의회의 의원15명을 뽑는 선거에、소수민족그룹의 지원을 얻고 한국인학생 신상헌군(19·2년생)이 출마를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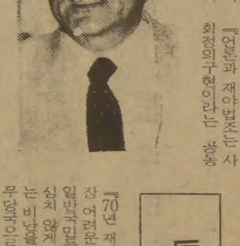
『여기도 못끼고 저기도 못끼어서는 곤란한 일입니다。미국사회에 살자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어야죠。더 적극적으로、더 열심히…』

미국유학의 제2세기는、어떻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이 된다。【桑港에서】

5분인터뷰

李炳勇 대한辯護士協 회장

"司法試驗관리위설치 在任중 관철… 법률구조활동도 擴大할 계획"



변호사법 개정으로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후 첫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출된 李炳勇변호사(57·사진)는 방송잡지윤리위원을 오래지낸데다 방송대담프로나 신문 인터뷰에 많이나와 일반인에게도 낯설지않은 변호사다。

가끔 「언론인」이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인물답게 당선소감 첫마디가 『언론과 재야법조는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재임기간동안 특별히 역점을두고싶은것은。

『70년 재야법조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일반국민들로 부터는 심심치 않게 악덕변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세무당국으로 부터는 탈세집단처럼 오해를 받고있어요。변호사회 내부적으로도 탈선변호사가 생겨나는등 흠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인식이 올바른 토대위에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령변호사대책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금번에 변호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자치의 진일보를 이루었다는 평이 있는데요。

『아직 미흡합니다。英·美國처럼 진정한 변호사자치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시험(사법시험)을 변협이 관장하고 징계권 역시 변협이 찾아와야합니다。해방 30년이 지나서야 올해 겨우 등록업무만을 얻어낸것만 봐도 완전한 자치자율이 요원한게 사실이지만 꾸준없이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와 관련、李회장은 정부의 법조정책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전혀 사회적 수용태세의 준비도없이 3백명씩 늘려뽑기시작한 것이 법조정책부재의 단적인 예입니다』

李회장은 과거에 20명정도 뽑던것도 문제지만 우리와 제도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때 1백명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李회장은 또 사법시험 합격자수 결정이나 관리를 위해 사법부、재야법조、법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재임기간중 정부에 건의、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복안도밝혔다。

李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의 변호사탈세 논쟁이 마음에 걸리는듯『전체 변호사가 고소득층인것처럼 생각하는것은 편견』이라면서『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라도 불식시키기위해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상담등 법률구조활동을 과거보다 훨씬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崔奎植기자】

記者의 눈

高麗 秘色

우리는 고려청자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해외문화재 전시가 있을 때면 항상 맨 앞장을 서는것은 고려청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고려청자때문에 목에 힘을 주면서도 그 아름다운 색깔을 어떻게 내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많은 도예가들이 고려청자 재현의 꿈을 갖고 비지땀을 흘렸으나 비온 뒤의 해맑은 가을하늘빛 같은 「高麗秘色」을 내는데 실패했다。

몇달전 한국방송공사는 대규모조사단을 구성、康津高麗청자 가마터를 답사하는 한편 국립공업시험연구소등에 의뢰、청자원료와 釉藥성분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다。화학적으로 청자잿물의 성분을 알아낸조사단은 그대로 청자를 만들어구워 보았으나 제대로 청자빛깔을 내는데 실패했다。

이번에 아산댐 수몰지구 조사를 하다가 10세기~11세기초의 가장 오래된 고려청자가마터를 찾아냈다。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물을 대는 아산댐때문에 뜻밖의 월척을 낚게된것이다。

청자가마터가 발견된 高敞雅山面일대는 학계에서 고인돌、冶鐵址、옛집터등을 갖추고있는 귀중한 유적지로 주목해왔던 곳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않았던것은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아닐수없다。아마 이런유적들을 지금보다 훨씬빨리 발굴、종합적으로 조사연구를했다면 지금은 베일에가려있는「高麗秘色」을 규명할수있었을지 모른다。

이번에 발견된 청자가마터는 純靑磁의 생성을 풀수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학계의 평가를 받고있다。더 이상 훼손되기전에 사적으로 긴급 지정한뒤 관계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하여야 할것같다。

그동안 많은 청자가마터가 발견되는과정을 지켜보며 신문에 이를보도했다。학자들은 발굴한뒤 체계적으로 조사하는데 소홀했을뿐아니라 보고서를 내지않는 폐단을 보였다。

이번에는 끈질기게 체계적인 발굴연구를하여 고려청자 비색을 기필코 풀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李忠雨문화부차장】

"살사람 나올는지"에 일부企業눈독

4개鐵道노선 民營化案 언저리

200억 赤字지만 週末 황금노선

財閥기업 引受땐 長期투자전망

京春、京元、서울郊外、東海南부선등 4개철도노선의 민영화방안이 검토되고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무관청인 철도청이나 교통부는『반가운 일이긴하나 누가사겠느냐』며 궁금해하는 눈치。철도청으로서야 湖南선복선공사등 막대한 철도적자요인을 메우기 위해서도 무슨방도를 마련해야될 입장이긴한데 장사가 안되는 이 4개철도노선을 민간에 판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입밖에 낼수는 없었던것。

전국의 철도노선중 일반적으로 흑자노선이라 불리는곳은 京釜、中央、京仁전철뿐이다。특히민영화가 거론되고있는 京春선은 82년도 영업계수가 1백90、京元선이 3백1、東海南부선이 1백75、교외선이 7백70으로 나타나고있다。예를들면 京春선의 82년도총수입이 50억원인데、동기간에들어간 비용은 90억원으로 40억원이 적자였다。4개노선의 적자를 전부 합칠경우 2백억원이넘는다。

82년도 철도적자가 약 9백20억원으로 이노선을 민영화할때 적자폭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부지와 시설을 팔 경우 호남선복선공사등 신규투자에 박차를 가할수있다。

그러나 철도청주변에서는 이번의 4개노선 민영화거론은 단순히 철도적자개선의 차원이 아닌것으로 풀이하고있다。

우선 이들 4개노선의 특징은 서울、釜山등 대도시와 주변도시나 교외를 연결하고 있다。지금도 평일에는 파리를 날리나 주말이면 시장터를 연상할 정도로 승객이몰리는 주말황금노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앞으로 급증할 레저교통인구와 대도시에의 통근인구증가를 염두에 두고 재벌기업에서 장기투자이다。

특히 철도차량을 자체생산할수있는 대기업이 이노선을 인수할경우 운행시간의단축、열차시설의 안락화、각종서비스개선등으로、현재 점차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도로교통추세를 감안할때 수지맞는 철도를 만들수있다는 장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든 많은 적자노선중에도 이들 4개노선이 유독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노선의 민영화방안이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높다。철도사업이공익부문이기때문에 이들 4개노선이 민영화되면우선 고급화되고 요금이 크게오를것이기 때문에 서민에게부담을 준다는것이다。

철도청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安城線등 적자선및 적자역폐쇄방안을 확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공익사업이란 이유때문이다。또 철도의 적자가 공무원의 느슨한 운영체제때문이기도 하지만 철도요금이 수송원가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얽매여 인상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사실 석탄、시멘트、양곡수송비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적정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공익사업으로서의 철도의 적자는 日本、프랑스、영국등 선진제국도 다름없는 골칫거리이다。또 고속도로의 발달로 사양화를 치닫고 있다。현재의 운영시스템으로는 공익성과 사양화의 압력에서 적자운영을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도시주변의 4개노선 민영화 방안은 한국철도에 새로운 계기를 줄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하다。특히 京春선은 일제시대에도 私鐵로 운영되었던 배경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私鐵과함께 철도가 二元化되면 구태의연한 철도청의 경영자세에도 하나의 자극이 된다는점에서도 민영화의 의미는 크다。

철도청으로서도 오는 6월부터 서울역 그릴을 비롯한 45개 열차식당의 운영권을 전부 민간에 넘겨주는등 경영합리화에 발을 내디딘 판이다。

정부에서도 고속도로위주의 수송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새마을호등、특급열차는 텅텅빈채 운행하면서 고속버스를 마구증차해주던 종래의 육운정책은 국민에게 다소 편리할지는 몰라도 자원낭비라는 점에서 큰 손실이다。【金首宗기자】

◇주말의 京春線은 행락인파로 만원이다。그러나 평일에는 승객이없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민영화를하면 흑자가 날수있을까。

제7회 고교동창대항 OPEN골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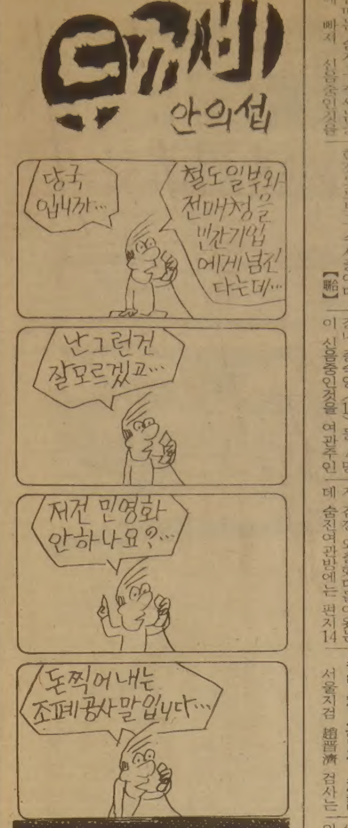
■일　　시 : 1983년7월1일 금요일
■TEE-UP 12 : 30 PM
■장　　소 : GLEN EAGLE GOLF CLUB
■참가자격 : 1. 각동창회 3인이상
　2. GUEST로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음.
■참 가 비 : 개인 35불(디너대 포함)
■동창회참가비 : 50불
■연 락 처 : 정연대 B)259-7733 R)749-0220　조용철 291-5978
　손병헌 B)532-0210　이무교 463-3489　정길수 826-4312

■접 수 처 : 한국비데오센타/678 Bloor St. W. ☎532-0210
■심사위원 : 정연대, 고광남, 김현모, 김진기, 조용철, 정길수

동창회 Gross 1,2,3등　　Longest 1등
　Net 1,2,3등　　Nearest 1등
Guest Gross 1,2,3등　　Honest 1등
　Net 1,2,3등　　모범학교 1등

주최 : 삼척공고동창회

후원 : 각고교동창회, 토론토한인골프협회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잇단「동반自殺 母情」

大邱·榮州서 6명 숨지고 2명은 重態

22일 상오9시께 大邱시 觀音洞705 차영도씨집 아래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黃영필씨(32)의 부인 李태자씨(28)와 黃씨의 장녀 유미양(4), 차녀 유진양(3), 장남 정태군(1)등 일가족 4명이 약명미상의 극약을 먹고 3남매는 숨지고 李씨는 중태에 빠져 신음중인것을 집주인 차씨의 딸 차정희양(17·모여고1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3남매가 숨진방안에서 약명미상의 극약병 1개와 유서 1통을 발견, 李씨가 남편의 가출에 따른생활고등을 비관,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한것으로보고 수사중이다. 【聯合】

【榮州】23일 새벽 0시35분께 경북榮豊郡豊基邑城内1洞166의1 팔도여관(주인 심경순·56) 6호실에 투숙한 변복길씨(42·고물행상·榮州市休川2洞642의262)의 부인 윤금순씨(32)와 장남 완호군(10) 차남민호군(8) 장녀 종숙양(12)등 4명이 신음중인것을 여관주인 심씨의 아들 최용기씨(27)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인 윤씨와 완호,민호 형제는 숨지고 장녀 종숙양은 중태다.

숨진 윤씨는 22일 하오 6시께 자녀 3명과 함께 투숙한후 榮州로 시외전화 4통을 하고 밤 8시께 혼자 잠깐 외출했다돌아왔는데 숨진여관방에는 편지14통과 농약을 탄 것으로 보이는 먹다 남은 우유와 야쿠르트병이 있었다.

경찰은 숨진윤씨가 가정불화로 인한 동반자살로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聯合】

남편毒殺한 金여인 촉탁殺人혐의 起訴

서울지검 趙晋濟 검사는 23일 남편독살범으로 구속된 金연주씨(39)를 살인미수및 촉탁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金씨를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으나 검찰의재수사결과 金씨의 「촉탁살인」 주장과부합되는것으로 밝혀져 이날 살인혐의대신 촉탁살인혐의등으로 기소한것.

검찰에의하면 金씨는 보험금을 타기위해 남편廉弼洙씨(37)의 부탁으로 남편을 독살한혐의인데 廉씨는 지난 3월15일과 16일 두차레에 걸쳐 문병온 화장품 대리점 관리인 朴모씨에게도 『링겔병에 독약을 넣어 죽여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했으며 지난1월에도 일가족이 방안에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기도한사실이 밝혀졌다는것이다.

지나친 사람慾心 등살에

반달곰 受難

쓸개등 藥材用으로 마구 屠殺

수입飼育 붐

◇치료 보람도없이 밀렵꾼의 총에맞아 빈사상태에서 구조됐으나 끝내 숨진 설악산 반달곰. 반달곰은 야생이거나 사육곰이거나간에 수난이 심하다.

천년기념물 제329호인「반달곰」은 수난도 많다. 야생곰은 야생곰대로 밀렵꾼의 총부리에 생명을 잃었고, 사육곰은 사육곰대로 도살돼가고있다. 한약재로서의 약효를 지니고있는것이 피가돼서인가. ★관련기사3면

사육곰의 경우 기르기가 쉬운데다 웅담등 한약재로서의 수익성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사육붐이 일고있어 야생곰보다도 오히려 사육곰의 수난이 심하다. 산돼지, 사슴에 이어 찾아온 건강유지를 위한 물결탓이다.

23일 관계기관집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 주변의 개인농장 20여군데에서 사육중인 곰은 줄잡아 1백여마리. 주로 일본 北海道산 반달곰이 대종을 이루고 다음이 泰國산불곰이다.

이처럼 곰의 수입사육이 가능한 것은 현행조수보호법이 「안전한 사육장시설을 갖추면 학술, 관람, 증식용으로 수입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 국내서식 곰은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법등의 보호를 받고있어 포획이 금지되고 있어 1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동물원이나 개인의 관상용으로 들여오지만 대부분은 수입후에 약재용으로 도살당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육붐속에 곰의 수요가 급증하자 수입선(輸入先)인 일본에서는 마리당 50만원씩하던 반달곰을 2백만원까지 값을올려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동물검역소에 의하면 곰의수입이 시작된것은 지난67년께부터. 당시재일교포 J씨가 최초로수입한 이후 지난81년말까지 모두 2백70여마리가 들어왔다. 82년엔 1백12마리, 금년에도 지난4월말현재 수10마리가 수입되었고 李모씨(54·전북南原郡南原邑錦洞)가 관광개발명목으로 20여마리를 수입신청해놓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근교의 어느 곰사육농장. 주말이면 고객이 장사진을 친다.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곰의쓸개(웅담·熊膽)를 얻기위해 오는데 가격은 마리당8백만원~3천만원. 사육자는 예약을 받으면 3일정도 굶긴다. 이렇게 굶기는 것은 소화효소(쓸개진)의 분비를막아 쓸개가 커지기를 기다리는것이다.

웅담은 1냥(37.5g)~2냥(75g) 정도가 나온다. 웅담은 아이스 박스에 보관, 가져가고 1바께쓰정도나오는 피도 즉석에서 처리된다. 이밖에 뼈는 신경통약재로 발바닥은 요리용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사육장에 처분을 부탁하기도한다.

특히 발바닥은 정력제로 알려져 호텔등지에서 사가는데 1족에 40만원이 넘는 요리로 둔갑되며 가죽은 박제용으로 이용된다.

이에따라 사육장주변, 특히 경기龍仁과 서울경동시장등지에는 곰의거래를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소개업자들이 1백여명이나된다.

K농원의 사육사 文모씨(28)는 『시중한약방에도 웅담은 있지만 진짜를 구하려고 산곰을 사러온다』고 말하고 『사육비가 1마리당 1개월에 5만원밖에 들지않아 사육자가 더욱 늘어난것』이라고 밝혔다.

창경원 사육과장 金正萬씨에의하면 『곰은 성격이 온순하며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이어서 기르기가 쉬우며 또 식성도 까다롭지 않은탓에 외국의 경우 관상용으로서 많이기르고있다는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등을 제외하고선 관상용으로 기르는곳이 거의 없는데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다 곰과친숙해져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자연보존협회 金遵敏회장(69)은 『반달곰은 한국을 비롯, 만주·대만·일본등지에서만 살고있고 희귀종』이라고 지적, 그것이 야생곰이든 사육곰이든간에 절대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朴珍列·金宗來기자】

銃傷반달곰 끝내숨져

雪嶽山 특수탄환사용 밀렵군추적

속보=雪嶽山에서 빈사상태로 발견된 반달곰이끝내 숨졌다.

경찰 구조대는 주민의신고에따라 21일 하오7시20분께 雪嶽山 馬登嶺정상북쪽 2㎞지점 속칭 범잔바위골(해발 1,200m)에서 중상을 당한채 신음중인 반달곰 암컷한마리를 발견, 응급치치를 했으나 치료시기를놓쳐 숨지고 말았다. 죽은곰은 10명의 구조대가 들것에담아 束草로 옮겨 束草수협냉동실에 보관중이다.

발견당시 곰은 총상을당한지 오래돼 몸에서 악취가 풍겼고 비스듬히 누워 움직이지도 못했다.

구조대는 곰의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등 간단한응급조치를 한뒤 옆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밤을 새웠다.

22일상오 수의사 崔周德씨(34)가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치료하자 곰은 한때 생기를되찾는듯 했으나 원기를 되찾지 못했다.

숨진곰은 10년생 암컷으로 척추에 총1발을 맞았는데 탄환의 사출구가 3곳이 나있어 중상이었다.

경찰은 23일 상오 곰을 해체검사한결과 뇌출혈과 장출혈로 숨진것으로 밝혀냈는데 몸무게 1백7㎏, 몸길이는 1백12㎝, 쓸개는 1백18g이었고 체고61㎝, 흉위 93㎝, 앞발바닥 길이는 13㎝였다.

등에맞은 총상은 머리에서 33㎝ 등뒤를관통했는데 오른쪽에서 뚫고들어가 왼쪽으로 관통한것으로 사입구는 2㎝, 사출구는3㎝의 크기였다.

이밖에도 눈위 발목등에도 창상이 있었으나 이는 총을맞은뒤 몸부림치다 입은 상처로 밝혀졌다.

해체검사가 끝난뒤 경찰은 천연기념물인 이곰을 문화재관리국에 인계했다.

한편 밀렵꾼 수사에나선 경찰은 탄환이 체내에서 3조각으로 갈라져 나갔다는 검사결과에따라 밀렵꾼들이 특수탄환을 사용한것으로 보고 雪嶽山일대의 밀렵꾼에대한 탐문수사를 펴고있다.

仁壽峰 등반중 추락

大學生2명 重態… 산악警察등이 구조

22일상오11시30분께 서울道峰區北漢山仁壽峰에서 암벽등반을하던 孫宇翼군(21·가톨릭의대 본과2년)李基鉉군(22·〃1년)등 2명이 30m아래로 추락, 孫군은 뒷머리 6바늘을 꿰매는 전치6주의 중상을입었고 李군은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같은학교산악부원인 孫군등은 이날 4명이휴일을 맞아뤼나드B코스로仁壽峰 암벽을 올랐는데 1백m높이에 이르렀을때 선두의孫군이 암벽에 고정된 볼트에 자일을 거는순간 낡은 볼트가 빠지는바람에 30m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매달려있던 李군도 함께추락했다는것.

사고가나자 지난19일 발족한 서울北部경찰서 산악안전구조대원 6명과 서울시산악연맹구조대원4명등 10명이 구조작업에나서 1시간여만에 이들을구조, 孫군을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운전계장등 셋拘束

城北驛구내 열차충돌관련

서울城北역 열차추돌사고원인을 조사중인 서울北部경찰서는 23일 城北역운전계장 尹吉遠씨(42)와 804호 京元線열차기관사 車廷國씨(44), 844호 교외선열차기관사 高鎭錫씨(28)등 3명을 중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尹씨는 지난20일 상오8시9분께 城北역구내에서 844호 열차가 입환작업중인데도 倉洞역에 804호가 들어와도 좋다는진입허가를 내줘 구내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35명이 중경상을 입게한 혐의이다.

또 車씨는 이날 상오 8시4분께 倉洞역을 출발, 시속60㎞로 운행하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는데도 이를 보지못했으며 高씨는 상오7시55분부터 8분이내에 입환작업을 마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작업을 지연, 사고를 빚게한혐의다.

웨곤·고속버스충돌 운전사등 2명사망

【永川】23일하오1시50분께 경북永川군北安面牛亭洞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부산을 떠나 대구로 가던 부산1라6576호 포니웨곤(운전사 文재수·43·釜山鎭區凡川4洞1230)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한진고속소속 경기6바1123호 고속버스(운전사李상우·47)와 정면으로 충돌, 운전사 文씨와 옆자리에탔던 尹상익씨(40·東萊區草梁洞89의6)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웨곤이 크게 부서졌다. 【聯合】

27만달러 密搬出사건

징역5~1년 求刑

27만달러 밀반출사건 관련피고인 10명에게 최고징역 5년에서 1년까지가 구형됐다.

서울지검 周善會 검사는 2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安文方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李京子피고인(42·大苑閣대표) 등 11명(법인 1개포함)에 대한 외환관리법 여권법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李피고인과 남편 李台熙피고인(49·삼호개발고문)에게 징역 3년 벌금 7천만원과,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李在完(36·미투리양화점대표) 安孝慶피고인(37) 부부에게는징역1년과 징역5년씩을, 李晶子(43·삼청각대표) 韓台圭피고인(45·起沆관광대표) 부부에게는 징역3년 벌금 1억원과, 징역3년 벌금 14억5천만원을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께 구속기소된 世一관광회장 閔泳煥(53) 同사장金泰淵(44) 부사장 崔明圭피고인(49) 등 3명에게는 징역3년, 징역2년,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하는한편 법인 서울프린스호텔에 대해서는 벌금 14억원을구형했다.

5行뉴스

◆시위成大生10명實刑선고

서울형사지법 제6단독 朴峻秀판사는 23일 南鳳祐피고인(23·중문과3년) 등 成大生10명에대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南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3년에서 1년6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3월22일 정오께 교내에서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며시위를 선동한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南鳳祐=징역3년▲洪甲杓(21·사학과4년)=〃▲徐漢錫(22·철학과2년)=징역2년6월▲金大永(22·중문과2년)=〃▲李憲弼(22·도서관학과4년)=〃2년▲徐彭浩(21·〃3년)=〃〃▲金勇基(23·신방과4년)=〃〃▲金星煥(21·정외과2년)〃〃▲韓相哲(22·사학과4년)=〃1년6월▲李根德(21·〃)=〃〃.

◆매맞은것 신고하자 殺害

【全州】전북 金堤경찰서는 23일 같은마을 주민을 흉기로찔러 살해한 宋현섭씨(32·전북金堤郡鳳南面新湖里357)를 살인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宋씨는 지난20일밤 8시40분께 마을앞 논에서 자신에게얻어맞은 같은마을 李종길씨(30)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품고 李씨의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聯合】

533-2361

"굿바이"

他界한 KT근무美國人 민츠氏

癌선고불구 꿋꿋이 직장생활하다…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 타임스에 근무하던 그라프톤·민츠(사진)란 미국인이 22일 낮12시 지병인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57세. 발인은 24일 상오10시 서울대학병원 영안실.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을 사랑했던 민츠씨는 60년대초 미국에 불었던 동양붐을 타고 풀브라이트교환교수로 한국에 온 평범한 미국인이다. 고향은 오하이오주 세니아. 오하이오주립대를 나와 펜실베이니아주루이스버그에있는 바크넬大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은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강의를 하다 한국에왔다.

부산대에서 영문학강의로 한국생활을 시작한 그는 점차 한국에 끌리게되자 그대로 눌러 앉았다. 부산대를거쳐 한동안 外大등에서 강의하기도했으나 70년1월5일부터 코리아 타임스로 자리를 옮겨 기사를 손질했다.

그가 암선고를 받은 것은 82년11월. 모두가 그를 더이상 볼수 없을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한달후 어느날 그가 갑자기 편집국에 나타나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보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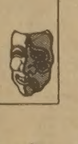
모두가 놀랐고, 암진단이 오진이었던가 보다고 생각까지했다.

그러나 그는 동료기자들의 질문에 『암은 암이다. 집에서 쉬며 월급을 받을수 없어 나왔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젊은 기자들은 어이가없었다. 그러나 코리아 타임스에서 13년동안 그의 근무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근도 지각도 없는 전형적인 양키였다. 그의 출근시간은 하오1시30분. 언제나 낮12시가 조금 지나면 식당에 나타나 점심대신 맥주 한병을 시켰다. 이를 홀짝홀짝 마셔가며 독서하거나 크로스워드를 풀다가 시간이되면 정확하게 기계처럼 편집국으로 내려가곤했다.

머리가 훌쩍 벗겨졌던 그는 「대머리민츠」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붙여준 이 닉네임을 즐겼다. 그는 어색한 콩글리시를 잉글리시로 고치는 이상의 교훈을 그의 한국인 동료에게 나눠주고 갔다. 【李炳日기자】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3107 Sheppard Ave. E.
M1T 3J7
Phone : 497-9794
(R)759-4560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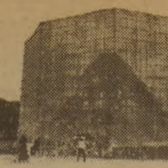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주사놓고 옷입혀…올해도 구호작전
俗離山 正二品松 솔잎 혹파리 방제



(…속리) 사전에 놓여있었으나 樹齡 800년 속리산의 正二品松(천연기념물 제103호)이 어느정도 되살아나 앞으로 솔잎혹파리의 침입만 막는다면 회생이 확실하다는 것. 이에따라 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위해 지난해 씌웠던 보호망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 보호망은 솔잎혹파리가 기승을 부릴때인 5월부터 7월말까지 正二品松을 보호하게된다. 당국은 俗離山에서 솔잎혹파리가 완전히 퇴치될때까지 매년 이같은 보호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俗離山=聯】

파리 방제작전이 펼쳐지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사진】. 문화재관리국은 지난해 4월 2천7백여만원을 들여 쇠파이프를 사용, 높이 18m, 둘레 96m의 거대한 철재앵글을 만들어 솔잎혹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보호망을 씌웠다가 지난해 7월 벗겼었다. 이 正二品松은 한때 솔잎혹파리의 침입을 받아 잎이 검붉은 빛을 내면서 고사…

肉彈공세 음료強賣

(…서울中部경찰서는 24일 오모씨(51·서울城東區 金湖洞2街) 등 5명의 여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등은 1년전부터 장충공원을 무대로 행상을 해오면서 이곳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소주와 콜라등을 시중가격보다 배이상 비싸게 강매해왔는데 음료수를 사지않을경우 옷을 벗어 유혹하는등 퇴폐적인 상술을 써왔다는 것. 경찰은 이들의 변태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中區 光熙洞일대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張吉山 <1748>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8)

『닷새쯤 기다리면 물건이 이리로 올것이다. 우리도 틈틈이 도와야 하니 있긴하지만 환도 등속을 다량으로만 들면 남의 눈에 띄기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군사가 오백여명이라면 삼사십씩 대를이루어 상단인듯이 꾸미고 한사흘에 걸쳐서 오게될 것이다. 우리 여각을 통하여 너희계의 혜음령에 가게될것이니 중길이에게 불비함이 없도록 일러두어라』

『예 그럼 닷새 뒤에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르겠습니다』

최영길은 혜음령 중길에게 가서 빠짐없이 전하고 특히 선내에 선진이 가서 외병을 기다리며 묵고 서로연락할 집을 전할 의논을 하였다.

『한양에 남아있던 계원들 가운데 외거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가 도성 밖이나 마포 서강에 나가 밥벌이를 하고 있으나, 김영선(金永先)이가 아직 연동(蓮洞)서 주막을 열어 먹고 살고 있으니 그에게 당부하면 될것이다』

『그가 아직 남의 노비입니까?』

『내관(內官) 김아무의 내림 행랑것이었다가 우리 계에 들어올 무렵에 외거하고 면천하자마자 우리 계에서 빠졌지. 영선이라면 믿을만하겠다』

『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선님이 직접 가서서 일러야겠습니다』

하여 그날로 중길이와 영길이는 선내로 들어갔다. 잠사는 그저 그런 면인데 그의 아내가 앓아누워 어린 딸과 밥 시중 손님 시중을 하느라고 고생이었다. 김영선은 중길이

張吉山 <1749>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9)

『저것이 이제는 종의지식이 아니라네. 나야 뭐 주막을 열어서 오가는 행객들의 쌀이나 돈을받아 살아가니 무슨 손님이든 상관없지만… 계원들은 못 받네. 무슨 혐의가 생기면 나두 전에는 사노출신이라 연좌를 피할길이 없네. 그러면 저 네석이 다시 평생 남의 종을 면할길이 없잖은가?』

중길이는 침통한 얼굴로 앉았다가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그러면 하는수 없군. 다른 집을 찾아봐야지』

『하지마는 나중에 우리를 원망마시오. 누군가 잡히거나 일을 그르치게 되면 계원인 선님도 우리일을 도왔다고 토설할테니까…』

『뭐라구?』

중길이는 놀라서 일어나는 김영선의 옷깃을 틀어쥐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목대감네 광에서 맞아 죽은 복성이 생각나지? 선님학구는 친형제처럼 지냈지. 사동원 노비였던 독쟁이 아저씨는 그 안될이며 아주머니는… 좋은 누구나 죽을때까지 살주계라는 말을 잊을수가 없수. 다시는 이집에 찾아오지 않을테니 마음 탁 놓구 천년만년 사시우. 관가에 적경 났다구 발고해두 좋아』

를 보자 얼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혀를 차고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저 안에 누워 있지. 얼마 못살것 같아. 인사불성이라네. 참 면천하느라구 고생두 많았네만… 나는 자네를 중후같에서 관군에게 모두 포살된 걸루 알구 있었네』

『몇 사람이 죽었수. 하지만 계원들은 모두가 식솔들과 잘 살구 있어요』

『아직두 살주계가 남아 있었던가?』

『우리 같은 공사천(公私賤)이 한사람두 남김없이 양인(良人)이 되기전에는 계를 헤칠수없수. 그나저나 이번에 무슨 일로…우리계에서 섬중에 며칠 묵어야겠는데 선님이 좀 거두어 주시우』

김영선은 잠잠히 있더니 나뭇짐을 나르고 있는 아이를 손가락질 하였다.

번거리고나서 길가에 내다 놓은 평상위에서 일어나 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초가를 두채 따로 지었으니 안에는 방둘에 마루가 딸렸고, 길가쪽으로 길게 지은 초가에는 널찍한 봉로방 둘과 작은 방 하나가 있고 곁에는 마굿간이 있었다. 원래 마당이 있었던 것같지만 두 집이 차지해버려서 안쪽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고 시원하였다. 그들은 마루에 가서 둘러 앉았다.

『아니, 자네가 여태 살아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김영선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중길을 바라보았고 중길이도 시선을 피하듯 공연히 이리저리 집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수?』

김영선은 그냥 쭈 하며

하고는 중길이가 그의 며 살을 내던지 듯 풀어 주고는 영길에게 뻗였다.

『가자. 종놈들이 면천한 놈 문턱을 밟아서야 쓰겠느냐』

그들이 돌아서는데 김영선이 중길이의 소매를 잡았다.

『중길이…화 내지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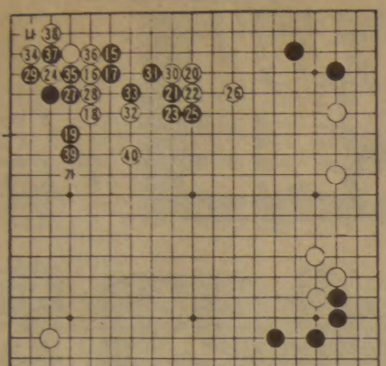
김영선은 그들을 다시 앉히고 입경하는 사람들의 숙식을 맡기로 응낙하였던 것이다.

황회와 김시동은 포천객주에 나가있는 고달근에게도 알리고 솔뚜리의복만이에게도 둔병할 것을 알렸다. 그리고는 서강으로 나가 모신네 객점을 찾아가 입경 일자를 알리고나서 청파 칠패 배오개 등지의 예전 검계원들에게는 자세한 내막을 말하지 말고 일단 거병된 뒤에 동원하여 변병에 합세하도록 당부하였다.

어느결에 유월이 다지나고 칠월에 접어들었다. 송도에 부탁하였던 물건은 벌써 칠석암에 와있었고, 시내비밀에서는 신동의 지시를 받은 귀선이가 한양 가서 군관의 복색을 사왔고 환도며 몽둥이를 숨겨두었다. 환도는 참포겸이었고 몽둥이는 박달나무로 깎은 한 팔 길이의 단봉이었다. 최영길은 파주로부터, 이정명과 전성달은 장길산과 금화의 대성법주로부터 각각 통문을 받고 잘알았다는 답보를 받아왔다. 정원태는 해전에 설유장이 작성하여 보냈던 신서를 빌어서 그들의 거사에 알맞은 여러가지 참언을 덧붙여 배포할 문서를 만들었다. 장차 미륵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과, 승불경불(僧不敬佛)하고 속즉경불(俗則敬佛)하니, 용(龍)이 아들을 낳아 주국(主國)하고 풍우부조(風雨不調)하고 오곡이 불성(不成)하여 사람들은 모두 굶어죽고 미륵존불께서는 북방에서 나와 눈이 손만큼 크고 금수복(錦繡服)을 입고 손에 큰 징을 쥐고 남북으로 오르내린다는 것이었다.

名人战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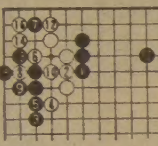
第17局 第2譜 15~40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 〈2勝2敗〉
黑(6段) 張 壽 英 〈4勝0敗〉

張6단 역시 王位戰도전을 실패한 때문에 名人戰에서 권토중래할 마음이 간절할게고 실제로도 지금은 도전권 획득의 가능성이 가장 좋은 곳에와 있다. 이바둑을 지더라도 4승1패로 徐奉洙7단과 동률결승을 벌이게되지만 같은값이면 5전전승으로 유리한고지에서 싸우고싶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 우선, 전면전쟁의 발단이된 좌상의 전초전부터 살펴보자.

黑15의 급한협공으로 白18까지 되었을때 黑19가 근자유행정석임은 전보에서 말한바 있거니와 南哲8단이 제시한 종전의 정석

全面戰의 발단



이란 참고도 黑의 1이하 17까지로 이 실은 그의 결과 전과의 차이는 미지수로서 『이렇게 두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었다.

黑21은 정수. 白24로 귀를 지키자 黑25를 선수하고 27, 29로 필연의 진행이다. 白은 18쪽이 튼튼해진 때문에 30, 32를 선수한다. 32의곳은 黑이 두어도 좋은 점이며 38까지도 당연. 黑이 39로 白은 40으로 大海에 진출한다. 여기서 黑「가」의 급소에 대비하자 白은 40「나」로 끊는 패는 상당한 모험인데 뒤에 이곳 패가 말썽을 빚게된다. 【一凡】

땅끝에서 오다 <64>

金成一 作 / 宋龍 畵

광야(曠野)의 소리 ④

그는 프로젝트 본부의 직원을 찾았다.

『아……전 동경지사의 임 준호 대립니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출근이 늦었습니다만』

『네, 천천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서류는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될거구요. 비자도 내일까지는 빠질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마 영등포 경찰서의 김 갑재 경사라는 분으로 부터 저에 관한 신원 확인 조회가 갈지 모르니 잘 부탁합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좀 시비가 있었거든요』

『저런, 하필 그 시간에 검문을 받으셨군요. 저, 그리고……』

『무슨 연락이라도 있었습니까?』

『동경지사의 우에다·구미꼬라는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경으로 급히 전화 좀 해 달라구요』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화를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저없는 우에다·구미꼬였다. 회사일이라면 그대로 용건을 말할수 있었을텐데 아마 개인적인 일인 모양이었다.

『아, 그리고……파리 지사로부터 어제 문의한 텔렉스 내용에 관해서 회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30분에 발신한 것입니다』

오후 5시30분이라면 서울의 밤1시30분… 임준호가 영등포 경찰서 취조실에 있던 시간이었다.

『파리 지사의 회신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필기준비를 하겠습니다』

준호는 안포키트를 더듬어서 볼펜과 수첩을 꺼냈다.

『네, 읽어주십시오』

『프로젝트본부장귀하. BELLE 258867라는 텔렉스 넘버는 파리 프로방스가에 있는 라·벨르라는 패션회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라·벨르회사에서는 12

땅끝에서 오다 <65>

金成一 作 / 宋龍 畵

광야(曠野)의 소리 ⑤

시 35분에 텔렉스를 내보낸적이 없으며 'LBP 0381'번 텔렉스는 13시 44분에 나갔는데 미국의 시카고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마리·베르니에 양의 증언입니다. 파리지사장 추신…시카고로 나가는 LBP 0381번텔렉스는 마리·베르니에양 자신이 발신하였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조반전이라서…조금후에 출근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나오십시오. 자, 그럼…』

준호는 전화를 끊으면서 다소 어리벙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LBP 0381이 거기서 친게 아니라면 그 텔렉스의 발신자는 무엇때문에 남의 상호를 도용했다는 것인가. 어머니가 생각난듯이 일어서고 있었다.

『내 정신 좀 봐. 준호야, 뭘 좀 해줄까? 뭘 먹고 싶지?』

『아, 어머니』

전같으면 오래간만에 귀국한 아들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목소리가 한 옥타브쯤 높아져서 법석을 하였어야할 어머니가 축 늘어진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잘 아시잖아요. 외국에 있다 들어오면 김치찌개 이상 좋은게 있나요?』

『오냐. 배고프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준호는 웃도리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이틀 사이에 몹시 달라져 있었다. 알지 못하는 거미줄에 얽히어서 허겁지겁 걸어온 이틀간이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은 아직도 그의 현실 속에 도깨비처럼 붙어 있었던 것이다. 1월 5일, 이제 내일은 다시 서울보다 일곱시간 태양이 늦게 뜨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아』

그는 입에 칫솔을 문 채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없는 방이었지만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유리처럼 보이고 있었다. 국민학교 입학식 때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날들을 따라다닌 어머니였던가. 학교에서도 유명할 만큼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극성스러운 것이었다. 육성회며 어머니회, 소풍날에서 학예회, 사생대회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습이 안나타난 곳이라고는 없었다.

또 어렸을때는 그렇다치더라도 대학 시절에까지 연줄을 찾아 주임교수 댁으로 인사를 하러 다니는 그 극성에는 준호도 그만 질려버렸을 정도였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인들 변할 수 있으랴. 말을 않고 있지만, 그 아들이 이제 겨우 기업체의 대리인 것과 미스코리아 며느리는 고사하고 아직 장가갈 생각도 않고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보기 딱하실 것인지 준호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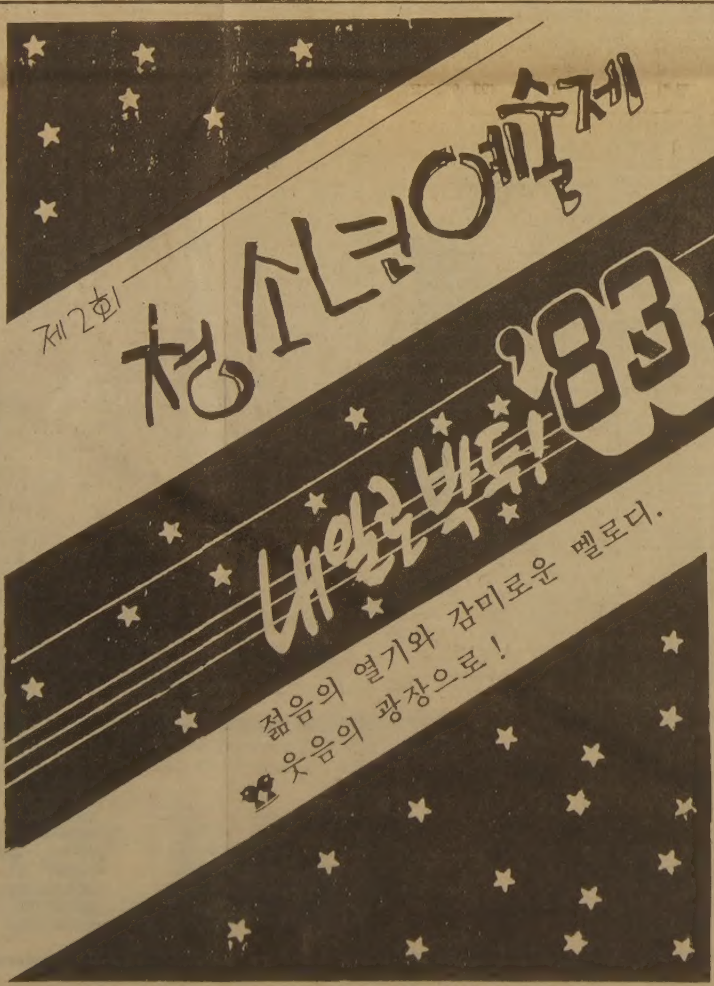
그동안 아버지의 발병으로 인하여 충격이 컸을 그 어머니가 그래도 잊지 않고 아들의 빈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 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이다.

그는 잘 정리되어 있는 책 꽂이에서 동창회명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칫솔에서 치약과 침이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는 의사가 된 동창들을 찾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없는가에 주의하며 그는 명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대하는 친구들의 이름이었다. 알에서 깨어난후 바닷새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하여 일제히 바다를 향해 달리는 거북이 새끼들의 모래밭질주처럼 그들은 지금도 정신 없이 달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 세원의 이름이 보이고 있었다. 리진물산주식회사 부장. 주소…전화번호…준호로서는 금뜻밖의 거미줄에 걸려들게 한 숫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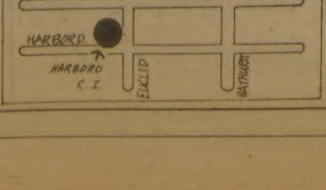
『신동헌·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주소…』

그는 다시 안방으로 건너가서 웃도리에 들어 있는 수첩에 신동헌에 관한 것을 적어 넣었다.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조용한 아이 신동헌의 모습을 그는 그려보고 있었다.



제2회 청소년 예술제

- 일시 · 1983년5월28일(토) 오후7시30분
- 장소 · HARBORD 고등학교
- 가격 : $5(균일)
- 주최 · KUSA
- 후원 ·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판매 수리 시설

GENERAL REFG. LTD. DEALER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김봉균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533－2361

화초 · 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렌든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6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먹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파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 1명
중국요리사 헬퍼 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경험있는 남•녀 동력재봉틀(Power Sewing Machine) 작동하실분 구함.
전화 : 533-7172

-자개 기술자 구함
(Mother of Pearl Technician)
-Abalone Shell Insetter
Antique Chest for Korean.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Mrs.김

조그만 가게 맡아서 하실 분 구함.
전화 : 466-9864 Mr. 리

도넛숍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Full or Part Time
861-1521(가게), 222-3877(집)

풀타임 웨이트레스 급구함
KATSURA 일본식당
전화 : 960-9035 Mr. Honda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유경험자. 당일 페이.
전화 : 466-9864. Mr. 리

Store 경험있는 여자 Cashier 급구함.
전화 : 532-9638
(저녁 9시 이후 전화 요망)

도넛숍에서 밤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끝.
전화 : 282-0634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학생 Part Time Store 헬퍼구함.
(Kipling & Albion 지역) 오후부터 시작.
전화 : 741-7692

집에서 재봉일 하실분 구함.
아주 간단한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전화 : 474-9224(낮) Markham지역.

개 인 지 도

지파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몯의 바랍니다.

☎ : 533-2361

매 매

큰 몰안에 있는 선물센타(Gift Shop)' 급매.
리스 1992년까지. 여자 혼자 운영가능.
전화 : 633-7479

특별 Dieter's Tea 판매중.
중국처방, 화공약품 가미않한 자연록차.
전화 : 656-8080 (체중감량 즉효)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o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시간짧과 이윤 좋은 가게 급매.
주매상 $3,200. 리스 4년. Rent $500.
가격 : 2만8천불. 전화 : 654-4709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1에어콘디쇼너 급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택 매매. 전화 : 763-1358.

---

2 베드룸 딸린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도넛숍 팝니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후렌차이스 스토아 급매.
주매상 $7,500. 권리금 $19,500+스탁.
캐쉬원함. 전화 : 223-4748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5,5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급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딸린 건물매매. Asking $259,0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번화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섬마린 빵가게 급매.
(1)가족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규모. (2)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매상. (3)월 이익금 5,000불 이상 보장. (4)양도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및 운영의 편의제공. 사업관계로 좋은 조건에 양도코자 함. 전화 : (604)875-8623, 밤 872-5593.
주소 : 1063 Davie St. Vancouver B.C. V6E 1M5 (Mr. Kim)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전망 좋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세일.
새로 셋압한 스토아임.
40스토아중 5스토아 오픈된 컴플렉스 몰에 위치.
(Yonge & Orchard Heights Blvd. in Aurora)
스토아를 새로 셋압하시고 싶은 분께 최적함.
전화 : 742-0412, 1-727-5902

Tuck Shop 팝니다. (오크빌지역)
연매상 17만불. 권리금 $2만9천 + 스탁.
전화 : 844-5719(오전 10:30이전, 또는 오후8시이후)

Grocery Store Business 급매(좋은 전망)
Asking $8,900. Call. Edmund.
Jony Jrustwell Realty Inc. 596-8170

Small Plaza 급매. Variety Store, Pizza, Video Shop 연수입 3만2천 4백. 15 Miles Toronto 북쪽
전화 : 1-519-941-8318(5시 이후)

스토아 급매. Asking $39,900+Stock
Kingston Rd.×Markham(Scaboro.)
전화 : 267-2292

Variety & Convenience Store 급매.
새 프라자안에 있음. 좋은 사업임.
(Located next to Swiss Chalet & Canadian Tire).
9625 Yonge ST.(at Yonge & Weldrick). 전화 : 884-5785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그로서리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 + Lotto. 주매상 $1만1천 + $1,300(Lotto). Asking $9만 + 스탁(현찰8만불).
No meat, no delivery. 1-514-364-4627 Mr.송

Gift Store 급매.
Bloor & Bathurst 지역.
전화 : 536-6590

아파트, 가게딸린 빌딩 팝니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주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실 내 장 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4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물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